

## 서부경남(거창·함양·하동·산청) 민간인 희생 사건

### 【결정사안】

한국전쟁 전후로 하여 경상남도 거창·함양·하동·산청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64명이 빨치산과 내통혐의, 국민보도연맹 등 예비검속 과정, 부역혐의 등으로 작전지역 또는 관할지역의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고 진실 규명으로 결정하였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규명이 불가능하여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 【결정요지】

1.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56명이고, 희생 추정자는 8명이며, 불능은 2건이다.
2. 서부경남(거창·함양·하동·산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들 중 일부는 좌익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은 좌익활동과 무관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당시 가해주체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했다.
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한국전쟁 이전 지리산지구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던 제5사단 제3연대 등 국군과 거창, 함양, 하동, 산청경찰서 경찰로 확인되었다.
4. 서부경남(거창·함양·하동·산청)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군과 경찰이 빨치산 토벌작전과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 부역혐의 등의 명분하에 적절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불법살해한 사건이다.

### 【전 문】

【사 건】 다-733호 외 45건, 서부경남(거창·함양·하동·산청) 민간인 희생사건

【신청인】 정연철 외 60명

【결정일】 2010. 6. 30.

**[주 문]**

- 다-953 등 4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 다-1981 등 2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사건 접수와 처리 과정**

신청인 정연철(다-733호) 외 61명(신청건수 45건: 거창 2건, 함양 13건, 하동 27건, 산청 3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발생한 여순사건 이후 군경에 의한 빨치산 토벌작전 시기부터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 시기 및 1953년 휴전 당시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등지에서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하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에 대해 2007년 2월 13일 등에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신청서 접수 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신청서 접수 상황**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	신청인(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사망월일
				이름(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거창								
1	358(3)	2005. 12. 28.	맹판호(孟判鎬)	맹태호(孟泰鎬)	남	26	형	1949. 8. 31.
2	358(3)	2005. 12. 28.	이재민(李在民)	이현욱(李賢旭)	남	36	조부	1949. 8. 31.
3	358(3)	2005. 12. 28.	백영식(白永植)	백창순(白昌淳)	남	27	부	1949. 8. 31.
4	358(3)	2005. 12. 28.	백영식(白永植)	백용순(白容淳)	남	19	숙부	1949. 9. 19.

##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	신청인(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사망월일
				이름(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5	358(3)	2005. 12. 28.	박종수(朴鍾壽)	박재규(朴在圭)	남	23	숙부	1949. 8. 31.
6	358(3)	2005. 12. 28.	정명수(鄭明水)	정진국(鄭鎭國)	남	29	백부	1949. 8. 31.
7	358(3)	2005. 12. 28.	심재수(沈載洙)	심재섭(沈在燮)	남	24	숙부	1949. 8. 31.
8	358(3)	2005. 12. 28.	김성준(金聖俊)	김상출(金相出)	남	23	숙부	1949. 9. 19.
9	358(3)	2005. 12. 28.	이충생(李忠生)	이성록 <sup>1)</sup> (李成祿)	남	27	숙부	1949. 9. 19.
10	358(3)	2005. 12. 28.	이충생(李忠生)	이춘복(李春福)	남	19	숙부	1949. 9. 19.
11	358(3)	2005. 12. 28.	윤창석(尹昌錫)	윤기순(尹基淳)	남	28	백부	1949. 9. 19.
12	358(3)	2005. 12. 28.	이순달(李順達)	이금행(李金行)	남	23	오빠	1949. 9. 19.
13	358(3)	2005. 12. 28.	김영희(金英姬)	김중환(金鍾煥)	남	23	백부	1949. 8. 31.
14	358(3)	2005. 12. 28.	김일분(金一粉)	김정곤(金正坤)	남	43	부	1949. 9월
15	358(3)	2005. 12. 28.	정길수(鄭吉洙)	정덕용(鄭德用)	남	23	숙부	1949. 9. 19.
16	358(3)	2005. 12. 28.	김종군(金鍾君)	김만대 <sup>2)</sup> (金萬大)	남	20	형	1949. 9. 19.
17	358(3)	2005. 12. 28.	이영일(李永日)	이영이(李潐伊)	남	33	부	1949. 3. 30.
18	868	2006. 1. 23.	박헌영(朴憲永)	박윤호(朴允浩)	남	40	부	1949. 10. 29.
19	4112	2006. 7. 4.	유권순(劉權順)	유봉태(劉鳳泰)	남	41	부	1949. 10.
<b>함양</b>								
1	953	2006. 1. 27.	공태술(孔泰述)	공기홍 <sup>3)</sup> (孔奇洪)	남	25	부	1949. 4.
2	1978	2006. 3. 3.	석주완(石周琬)	석성수(石聖守)	남	31	부	1949. 봄
3	1981	2006. 3. 3.	조증석(趙曾石)	조성옥(趙星玉)	남	28	부	1949. 7. 25.
4	2877	2006. 4. 10.	한승희(韓升熙)	한상훈(韓相燾)	남	39	부	1949. 9. 5.
5	3086	2006. 4. 21.	곽진석(郭珍錫)	곽병석(郭丙錫)	남	23	형	1949. 4.
6	3580	2006. 5. 19.	홍현표	홍순철(洪淳哲)	남	26	삼촌	1949. 9. 5.

제 7 권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	신청인(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사망월일
				이름(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7	5116	2006. 9. 11.	김종일(金宗日)	김채규(金采圭)	남	22	삼촌	1948. 12.
8	6809	2006. 11. 14.	이덕순(李德順)	곽봉준(郭鳳準)	남	28	남편	1949. 5.
9	8741	2006. 11. 30.	강동민(姜東珉)	강위철(姜渭喆)	남	21	삼촌	1948. 10. 31.
10	9975	2006. 11. 30.	김일성(金一成)	김원대(金元大)	남	27	형	1948. 12. 7.
11	10169	2006. 11. 30.	신경학(申敬學)	신재현(申在鉉)	남	22	조부	1949. 1. 20.
				신호영(申浩永)	남	25	백조부	1949. 1. 20.
12	2604(1)	2006. 3. 22.	전영호(全永浩)	전영구(全永九)	남	27	형	1949. 8.
13	3360(1)	2006. 4. 28.	권광수(權曠洙)	권구현(權求鉉)	남	27	부	1949. 9.
				권계현(權季鉉)	남	22	삼촌	1949. 9.

하동

1	733	2006. 1. 16.	정연철(鄭然喆)	정윤희(鄭允和)	남	34	부	1950. 7. 14.
2	3232	2006. 4. 27.	정상석(鄭相錫)	정흥덕(鄭興德)	남	31	백부	1949. 4. 18.
3	3233	2006. 4. 27.	정양옥(鄭良玉)	정태석(鄭泰錫)	남	46	부	1949. 4. 18.
4	3676	2006. 5. 25.	정맹석(鄭孟錫)	정민석(鄭玟錫)	남	30	형	1949. 7.
5	6158	2006. 10. 23.	강성호(姜聖浩)	강윤석(姜允錫)	남	31	부	1949. 5. 17.
6	6159	2006. 10. 23.	강명석(姜明石)	강점복(姜点福)	남	44	부	1950. 7. 20.
7	6160	2006. 10. 23.	강서중(姜瑞中)	강대선(姜大璇)	남	37	백부	1950. 7.
8	6161	2006. 10. 23.	정복기(鄭福基)	정사현(鄭士賢)	남	32	오빠	1949. 6.
				정수현(鄭守賢)	남	21	오빠	1949. 6.
9	6168	2006. 10. 23.	이성수(李성수)	이덕성(李德成)	남	25	형	1950. 7.
10	6174	2006. 10. 23.	정필복(鄭畢福)	심은섭(沈銀燮)	남	28	남편	1949. 여름
11	6175	2006. 10. 23.	이금악(李錦岳)	이인호(李仁鎬)	남	29	오빠	1949. 6. 1.

##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	신청인(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사망월일
				이름(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12	6176	2006. 10. 23.	조기열(曹基烈)	조성조(曹聖助)	남	44	부	1949. 5. 17.
13	6177	2006. 10. 23.	정봉점(鄭鳳占)	정을묘(鄭乙卯)	남	34	시숙	1949. 5. 17.
14	6178	2006. 10. 23.	최권호(崔權鎬)	최성덕(崔聖德)	남	36	부	1950. 7.
15	6179	2006. 10. 23.	정봉기(鄭鳳基)	정환삼(鄭煥三)	남	27	부	1949. 5. 19.
16	6180	2006. 10. 23.	심감애(沈甘愛)	심재섭(沈在燮)	남	35	부	1949. 5. 17.
17	6181	2006. 10. 23.	김윤자(金允子)	심정섭(沈鉦燮)	남	31	시부	1949. 봄
18	6182	2006. 10. 23.	정은채(鄭垠采)	정순경(鄭淳鏡)	남	27	부	1949. 6. 20.
19	6183	2006. 10. 23.	하유시(河有市)	하청일(河淸逸)	남	28	부	1950. 7.
20	6184	2006. 10. 23.	김득근(金得근)	김광명(金光明)	남	23	부	1950. 7.
21	6185	2006. 10. 23.	공성택	이삼용(李三龍)	남	24	처남	1949. 봄
22	6186	2006. 10. 23.	심재환(沈在換)	심두섭(沈斗燮)	남	21	부	1949. 7. 17.
23	6503	2006. 11. 2.	박한기(朴漢基)	박삼용(朴三龍)	남	28	부	1950. 7.
24	8732	2006. 11. 30.	홍성구(洪성구)	홍승윤(洪承允)	남	18	삼촌	1950. 7.
25	9289	2006. 11. 30.	김원석(金源錫)	김도종(金道宗)	남	46	부	1949. 7. 21.
26	9434	2006. 11. 30.	황국선(黃菊仙)	황월봉(黃月奉)	남	24	부	1950. 10.
27	7306(1)	2006. 11. 30.	최규삼(崔圭三)	최수열(崔穗烈)	남	33	삼촌	1949. 7.
<b>산청</b>								
1	3147	2006. 4. 25.	서봉석	미상 <sup>4)</sup>				1951. 2~3월
2	3762	2006. 5. 29.	문종길(文宗吉)	문홍택(文洪澤)	남	38	종백숙부	1952. 3. 9.
				박씨 <sup>5)</sup>	여		3종조모	1952. 3. 9.
3	3763	2006. 5. 29.	문종길(文宗吉)	문홍각(文洪珪)	남	35	부	1951. 12. 24.

## 나.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국군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후 지리산 등으로 도피하여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자 군경이 반란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사건.

② 1950년 한국전쟁 발발한 후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예비 검속하는 과정에서 군경에게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사건.

③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이 점령했던 기간 동안 인민군에게 부역을 했다는 혐의로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사건.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희생사건에서 민간인들이 군경에게 불법적으로 희생당했다고 주장했다.

##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 결정하였다.

## 3. 규명과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음의 과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1) 사건의 실재 여부와 경위
- 2) 희생규모, 희생자의 신원과 특징
- 3) 가해주체와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 
- 1) 신청서에는 당시 집에서 부르던 이름인 이춘달라고 하였으나 제적등본에는 이성록(李成祿)으로 되어 있어 이 보고서에는 이성록으로 하였다.
  - 2) 신청서에는 당시 집에서 부르던 이름인 김종대라고 하였으나 제적등본에는 김만대(金萬大)로 되어 있어 이 보고서에는 김만대로 하였다.
  - 3) 집에서는 공학만이라고 불렀다.
  - 4) 신청인은 1951년 2~3월경 신원을 알 수 없는 민간인 수백여 명이 국군에게 끌려와 희생당했다고 진실규명 신청했다.
  - 5) 신청인은 진실규명대상자가 족보에 입적하지 않은 상태이며, 후손이 없어서 이름을 모른다고 했다.

## 4) 가해의 적법성 여부

## 4. 조사방법

## 가. 신청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면담을 통해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통화를 하여 통화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진실규명 접수 후에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사건 당시 나이가 어려 내용을 잘 모르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다른 유족으로 대체하여 조사하거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신청인 주요 진술내용은 <표 2>와 같다.

&lt;표 2&gt; 신청인 주요 진술내용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sup>6)</sup>	주요 진술
거창								
1	358(3)	맹판호 (1936)	맹태호	형	2008.4.16. 거창군청 감사 작업실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도 빨치산들이 덕유산과 지리산을 오가면서 마을에 와서 총으로 위협하면서 밥을 해달라거나 짐을 저달라고 하여 이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었음.</li> <li>• 이 사실을 경찰들이 알고 나서 형을 비롯한 마을 젊은 사람 7명을 안의지서 경찰에 연행하여 지서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총살하고 한구덩이에 묻었음.</li> <li>• 안의면에 살던 숙모님이 조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으며 조금 후에 총소리를 들었다고 함.</li> <li>• 희생자의 가족들이 소문을 듣고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였으며 본인도 가족들과 함께 형님 시신을 수습하였음.</li> </ul>
2	358(3)	이재민 (1969)	이현욱	조부	2009.11.23.	전문	전화 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부의 희생사실을 조모, 모친으로부터 들었음.</li> <li>• 같은 마을 주민 7명이 빨치산에게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안의지서 경찰에 끌려가서 심한 고문과 조사 후 인근 야산에서 집단살해당했음.</li> <li>• 가족과 마을주민들이 시신을 수습했음.</li> </ul>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sup>6)</sup>	주요 진술
3	358(3)	백영식 (1942)	백창순	부	2009.11.26.	전문	전화 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부모로부터 들었음.</li> <li>• 산에서 내려온 빨치산들에게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아버지(백창순)를 비롯하여 마을주민 7명이 먼저 안의지서 경찰에게 끌려가서 지서 뒷산에서 총살당하여 할아버지가 현장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였음.</li> </ul>
4	358(3)		백용순	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뒤로 동네 젊은 사람들을 수시로 경찰이 끌고 갔으며, 대부분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랐다고 들었음.</li> <li>• 숙부는 한참 후에 끌려갔는데 아마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이 끌고 가서 죽인 게 아닌가 생각됨. 산청 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조부가 숙부 시신을 찾으러 갔으나 찾지 못하였음.</li> </ul>
5	358(3)	박종수 (1943)	박재규	숙부	2009.11.22. 거창군청 감사 작업실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로부터 들었음.</li> <li>•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동네사람들이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안의지서에 끌려간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희생당했음.</li> <li>• 현장에서 가족들이 시신수습하였으며 음력 7월7일에 제사 지냄.</li> </ul>
6	358(3)	정명수 (1953)	정진국	백부	2009.10.22. 거창군청 감사 작업실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부모로부터 들었음.</li> <li>• 백부 정진국이 동네이장을 볼 때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마을사람들이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마을주민 여러 명이 안의지서에 함께 끌려가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희생되었으며, 조부모님이 현장에서 시신수습하였음.</li> <li>• 칠월칠석에 제사를 지냄.</li> </ul>
7	358(3)	심재수 (1954)	심재섭	백부	2009.10.22. 거창군청 감사 작업실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모, 부친에게 들었음.</li> <li>• 동네 젊은이들이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총에 맞아 희생되었음.</li> <li>• 조부가 백부를 구하려고 돈을 구하여 지서에 갔으나 경찰들이 이미 죽었다고 하였음.</li> <li>• 현장에서 시신수습, 칠월칠석에 제사를 지냄.</li> </ul>
8	358(3)	김성준 (1950)	김상출	숙부	2009.11.24.	전문	전화 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7.28(음) 동네구장으로부터 친구 1명과 같이 안의지서로 가라는 연락을 받고 지서에 갔는데, 바로 군인에게 인계되어 인근 야산에서 총으로 살해당함.</li> </ul>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sup>6)</sup>	주요 진술
8	358(3)	김성준 (1950)	김상출	숙부	2009.11.24.	전문	전화 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머니가 소문을 듣고 현장에 가서 시 신수습하여 가매장, 후에 함양군 수동면으로 유골을 모셨다고 함.</li> </ul>
9	358(3)	김행임 (1940)	이성록	시부	2008.4.16. 거창군청 감사 작업실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이충생) 사망으로 처 김행임이 대리 진술함.</li> <li>• 김행임은 당시 거창군 신원면 거주하였으며 사건 이후에 이충생과 결혼했음.</li> <li>• 남편과 주민(맹판호)으로부터 사건내용을 들었음.</li> </ul>
10	358(3)		이춘복	시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의면 춘전리에 살던 젊은 사람들 24명이 안의지서 경찰에 끌려가서 희생당했다고 들었음.</li> <li>• 시아버지(이성록)와 시삼촌(이춘복)이 같은 날 끌려가서 희생되었으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음.</li> </ul>
11	358(3)	윤창석 (1954)	윤기순	백부	2009.10.21. 거창군청 감사 작업실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모와 고모로부터 들었음.</li> <li>• 백부가 산에서 내려온 빨치산에게 밥을 주었다는 이유로 1949.7.27(음력) 안의지서 경찰이 연행하여 가서 총으로 살해하였음.</li> <li>• 할머니가 안의면 공산머리 가매실에서 시신을 찾으려고 갔으나 시신이 뒤엉켜 있어 찾지 못함. 음력 7월26일 제사 지냄.</li> </ul>
12	358(3)	이순달 (1932)	이금행	오빠	2009.10.21. 거창군청 감사 작업실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시 거창읍내 결혼한 언니 집에서 집안일을 돌봐주고 있었으며, 진술내용은 어머니로부터 들었음.</li> <li>• 동네에서 빨치산들에게 밥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1949. 7.27(음력)에 동네 젊은 사람들을 여러 명 끌고 가서 죽였음.</li> <li>• 당시 큰와삼촌이 지게로 시신을 수습하였음.</li> </ul>
13	358(3)	김영희 (1954)	김종환	백부	2009.11.25.	전문	전화 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의 부친(사망)으로부터 들었음.</li> <li>• 백부 김종환이 빨치산에 협력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끌려가서 사망했고 백부의 시신은 마을로 옮겼음.</li> </ul>
14	358(3)	백원일 (1941)	김정곤	장인	2009.10.22. 거창군청 감사 작업실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김일분)의 남편.</li> <li>• 사건 당시 같은 마을 거주하였으며 함께 자랐음.</li> <li>• 김정곤이 조카인 김중대(제적등본에는 김만대)가 경찰에 잡혀가서 희생당하자 죄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떠돌고 다니다 같은 해 안의지서경찰에게 잡혀가서 안의면 가매실에서 돌아가셨다고 장모로부터 들었음.</li> </ul>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sup>6)</sup>	주요 진술
14	358(3)	백원일 (1941)	김정곤	장인	2009.10.22. 거창군청 감사 작업실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이 시신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하여 가족들이 시신을 모셔 와서 동네 산에 모셨음.</li> </ul>
15	358(3)	박무임 (1942)	정덕용	시숙	2009.10.21. 거창군청 감사 작업실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정길수)이 내용을 몰라 신청인 모친이 진술함.</li> <li>•춘전리에서 태어나 자랐고 뒤에 정석조(신청인 정길수의 부)와 혼인하여 시할머니로부터 시삼촌의 희생사실을 들었음.</li> <li>•산에서 내려온 빨치산에게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동네 젊은 사람들이 안의지 서로 끌려가서 희생당했다고 들었으며, 맹판호의 형 맹태호 등 7명이 먼저 죽었고, 시삼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뒤에 끌려가서 사망했다고 들었음.</li> </ul>
16	358(3)	김종군 (1932)	김만대	형	2009.11.25.	목격	전화 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비토벌 당시 경찰에게 잡혀가서 공비에게 협조하였다는 자백을 강요당하면서 심하게 고문, 구타당했음.</li> <li>•같은 마을 젊은이들 여러 명이 수차에 걸쳐 희생당하였는데, 형은 들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경찰에게 잡혀갔으며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음.</li> <li>•경찰에게 끌려가신 날(음력 7월13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음.</li> </ul>
17	358(3)	이영일 (1944)	이영이	부	2008. 9.11. 부산시청 자치행정과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시 사건의 내용은 잘 모르나 어머니로부터 자주 들었음.</li> <li>•거창경찰서에서 부친을 연행하여 갔고 어머니가 옷을 전달하려고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만나지 못했음.</li> <li>•열마 후 어머니가 마리면 장백부락 건너편 논에서 일 하시다가 트럭에 많은 사람들(약 30여 명)이 실려 북상 쪽으로 가는 것을 목격하였음.</li> <li>•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서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음.</li> </ul>
18	868	박헌영 (1937)	박윤후	부	2008. 4.16. 거창군청 감사 작업실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친 박윤후가 1949년 8월 30일(음력) 대동청년단장의 집을 빨치산에게 알려 주었다고 함.</li> <li>•청년단장은 이미 다른 빨치산들에 의하여 구타를 당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청년단장을 살해한 후 산으로 도주하였음</li> <li>•그의 부친이 경찰에 신고하여 박윤후 외 2명이 지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에 청년단장의 부친이 박윤후를 가리키며 빨갱이들을 왜 풀어 주냐고</li> </ul>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sup>6)</sup>	주요 진술
18	868	박현영 (1937)	박윤희	부	2008. 4.16. 거창군청 감사 작업실	전문	진술 조서	거칠게 항의하며 이들을 죽이라고 하자 경찰이 소아부락과 비곡부락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서 대검으로 박윤희를 살해하고 나머지 2명은 석방하였다고 마을사람들로부터 들었음.
19	4112	유권순 (1936)	유봉태	부	2008.4.17 거창군청	전문	진술 조서	· 모친으로부터 사건의 내용에 대해 들었음. · 신원면 청수리 수동부락에 살던 부친 유봉태는 진술인이 4살 때인 1949년 경찰에 잡혀간 뒤 살해당했음. · 부친과 함께 희생된 마을주민들에 대해 아는 바 없음. · 희생일을 몰라 음력 9월 9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음.

함양

1	953	공태술 (1944)	공기홍	부	2008.6.4. 휴천면 금반리 석정마을회관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친 공기홍을 휴천지서 순경들이 연행한 후 구타를 하고 고문을 하였음. 휴천지서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아버지를 동네 앞에 실어다 놓고 가족들에게 시신을 찾아가라고 함.</li> <li>• 마을에서 조길동, 표기수, 광병석 등이 비슷한 시기에 잡혀간 후 사망함.</li> </ul>
2	1978	석주완 (1938)	석성수	부	2006.3.3.	전문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천면 추성리 민보단장이던 부친과 감찰부장 권병호가 국군에게 묶여 남원군 산내면 지서로 연행되어 취조당한 후 귀가하던 중 국군이 권병호에게 민보단장이 누구냐고 물어 뒤따라오는 사람이라고 알려준 이후 부친이 행불됨.</li> </ul>
3	1981	조증석 (1942)	조성옥	부	2009.2.4. 신청인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복형사 2명이 집으로 찾아와 함양으로 훈련받으러 가야 한다면서 데리고 감.</li> <li>• 큰아버지가 함양경찰서에 구금된 아버지를 몇 번 면회했는데 한 달 후에 소식이 없게 되었다고 함.</li> </ul>
4	2877	한승희 (1937)	한상훈	부	2010.4.26. 신청인 자택	전문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8월 6일경 동네구장 일을 하며, 대한청년단 부단장을 하던 한상훈은 대한청년단 교육을 받으러 집을 나서던 중 경찰에게 연행되어 신청 방면으로 끌려가서 사살당함.</li> </ul>
5	3086	곽진석 (1941)	곽병석	형	2008.6.4. 휴천면 금반리 석정 마을회관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천지서 순경 김동원이 집에 있던 형을 지서로 연행하여 구타한 후 군인에게 넘겨져 지서 인근에서 총에 맞음.</li> <li>• 총에 맞은 형님은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꾼에게 발견되어 연락을 받은</li> </ul>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sup>6)</sup>	주요 진술
5	3086	곽진석 (1941)	곽병석	형	2008.6.4. 휴천면 금반리 석정 마을회관	목격	진술 조서	집안사람들이 데려오던 중 사망함. • 같은 마을에서 며칠 사이에 조길동, 표기수가 희생당함.
6	3580	홍현표 (1967)	홍순철	백부	2006.5.19.	전문	신청서	• 신청인이 사망하여 신청서 내용을 정 리했음. • 백부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이상 달 <sup>7)</sup> 등과 함께 서하지서 경찰에게 연행 되어 지리산 쪽으로 끌려가 사망하였다 고 들었음.
7	5116	김종일 (1965)	김채규	백부	2008.8.4. 신청인 자택	전문	진술 조서	• 휴천면 문정국민학교에서 반란군을 진 압하던 국군에게 구타를 당한 후 사살됨. • 당시 마을이장이 백부가 국군에게 사 살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와 조부님이 마 을사람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시신 을 수습함.
8	6809	이덕순 (1920)	곽봉준	남편	2008.3.18. 마천면사무소 복지상담실	목격	진술 조서	• 3연대 군인들이 집에 있던 남편과 같 은 마을의 윤종태를 데려간 후 가흥리 토롱골에서 사살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시신을 수습함. • 남편은 마천면서기를 하고 있었음.
9	8741	강동민 (1962)	강위철	백부	2009.9.22.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 군인 세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던 백부를 연행한 이후 소식이 없음. • 백부는 당시 마을 청년회장과 반장을 하고 있었다고 함.
10	9975	김일성 (1941)	김원대	형	2009.9.18.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 한밤중에 집으로 찾아온 군인인지 경 찰인지 모를 사람들이 뺨치산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야간 경계를 서던 형을 연행하여 함양경찰서에 구금함. • 함양경찰서에 구금되었던 형은 남원 실상사 뒤편에서 사살되었다고 당시 함 양경찰서에서 소사로 일하던 사돈이 알 려주었다고 함.
11	10169	신동천 (1936)	신재현 신호영	조부 백조부	2009.5.30. 신청인 자택	목격	진술 조서	• 신청인 신경학은 당시 미출생으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신동천이 대신 진술함. • 신호영, 신재현 형님 두 분과 마천지 서로 연행되어 15일 정도 구금되었다가 본인은 풀려나고 형님들은 군인들에 의 해 금대산으로 끌려갔음. • 이후 형님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친척 들과 함께 금대산에서 시신을 수습함.
12	2604(1)	전영호 (1939)	전영구	형	2008.4.29. 신청인 자택	전문	진술 조서	• 1949년 안의지서 순경 두 명이 집으 로 찾아와 형을 연행함. • 부친이 함양군 본티고개에서 시신을 수습해 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sup>6)</sup>	주요 진술
13	3360(1)	권광수 (1949)	권구현 권계현	부 삼촌	2009.6.17. 신청인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아버지와 삼촌이 경찰에게 잡혀가 돌아가셨으며 시신은 찾지 못함.</li> <li>• 조부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하여 수동면 본통고개에서 시신을 찾음.</li> </ul>
하동								
1	733	정연철 (1942)	정윤화	부	2008.4.15. 하동군청 청문실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년 5월 그믐(음력) 집으로 찾아온 경찰들이 하동경찰서로 데려간 후 행방불명됨.</li> <li>• 마을에서는 최채영, 이우춘, 조씨들이 함께 잡혀갔으며, 광양 돈박고개(매티재)에서 집단학살당했다는 소문만 들었음.</li> </ul>
2	3232	정상석 (1952)	정흥덕	백부	2008.4.24. 하동군청 청문실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백부는 김양국민학교에서 마을사람 여러 명과 함께 군인들에게 끌려가 구례의 담배창고에 갇혀 있다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6·25전쟁이 난 후 그곳에서 사망했다고 함.</li> <li>• 전주형무소로 넘어갔다는 것은 함께 잡혀갔다가 담배창고에서 살아온 박기호로부터 들었음.</li> </ul>
3	3233	정양옥 (1934)	정태석	부	2008.4.24. 하동군청 청문실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어린아이와 나이든 사람을 제외하고 스무 살 넘는 주민들을 김양국민학교로 모이라고 했음. 당시 아버지는 전주형무소에 있다가 나왔는데 군인들에게 잡혀간 마을사람 중에는 아버지와 함께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도 있음.</li> <li>• 학교에서는 군인들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름을 부른 다음 트럭에 싣고 갔다고 현장에 있던 어머니로부터 들었음.</li> <li>• 잡혀간 마을사람들은 구례의 담배창고에 갇혀 있다가 박기호는 풀려나고 나머지는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는 말을 담배창고에서 풀려난 박기호와 전주형무소로 면회를 갔던 당숙모로부터 들었음.</li> </ul>
4	3676	정맹석 (1936)	정민석	형	2008.8.7.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정민석이 하동을 떠나 서울 누나 집에 도피해 있다가 정정석에게 안부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주소로 하동경찰들이 찾아와 연행하여 하동경찰서에 구금하였다가 노량 앞바다에 돌을 매달아 죽였다고 전해 들었음.</li> </ul>
5	6158	조성림 (1922)	강윤석	남편	2008.6.6. 적량면 동리 동촌마을회관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강성호의 모(母) 조성림이 진술함.</li> <li>• 1949년 남편과 마을사람(정을묘, 조</li> </ul>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sup>6)</sup>	주요 진술
5	6158	조성림 (1922)	강윤석	남편	2008.6.6. 적량면 동리 동촌마을회관	전문	진술 조서	성조, 정환삼, 심재섭, 최태영) 등 6명이 군경에게 잡혀가 화개면 소재 담배창고 에 구금되었다가 소식이 없음. •같은 마을에서 두 달 후 심은섭, 심정 섭 등도 잡혀가 소식이 없음. •잡혀간 마을사람들은 모두 군인들에 게 죽었다는 소문만 있음.
6	6159	강명석 (1937)	강점복	부	2008.4.15. 하동군청 청문실	전문	진술 조서	•1950년 적량면 서리에 거주하던 사람 들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경찰에게 잡혀 간 후 소식이 없음. •소문에는 경찰들이 데려다가 총살시 켰다고 함. •어머니는 국군이 하동을 수복했을 때 적량지사로 잡혀갔는데, 경찰은 어머니 에게 “인민군 치하에서 무엇을 도와주었 느냐” 고 하면서 심하게 구타를 가해 이 후 몇 년간 고생하다가 사망함.
7	6160	강서중 (1938)	강대선	백부	2008.5.28.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1950년 경찰들이 마을사람들을 보도 연맹 사건으로 잡아간 후 소식이 없음. •연행된 사람들은 하동경찰서에 구금 되었다가 광양 매택재에서 사살되거나 금남면 노량 바닷가에서 수장되었다는 소문이 있음.
8	6161	정복기 (1940)	정사현 정수현	오빠	2010.4.11. 적량면 서리 자택	목격	진술 조서	•1949년 6월경 오빠 정사현과 정수현은 마당에서 보리타작을 하려다가 마을에 상을 당한 집이 있어 문상을 다녀오려고 문을 나서고 있는데, 경찰하고 방위대 사 람들이 와서 연행하는 것을 목격함. •다음날 어머니가 적량지사로 밥을 해가 지고 가서 면회를 했으나 그다음 면회를 갔을 때에는 적량지서에 없었다고 함. •당시 오빠들과 함께 잡혀간 마을사람 들은 연일 정씨 형제, 공은택, 공만호, 공만호의 형, 이인호 등이 있었는데 공 만호의 형만 살아 돌아왔으나 그때 맞은 후유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고 함. •다음해인 1950년 황천면 원동에 살던 사람이 어머니를 만나 오빠들과 함께 전 주형무소에 있다가 본인은 먼저 나왔다는 하여 어머니는 전주형무소로 오빠들 을 면회하러 갔으나 그때는 6·25가 난 후여서 전주형무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고 함. •작은오빠 정수현의 제적부에 1953년

##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sup>6)</sup>	주요 진술
8	6161	정복기 (1940)	정사현 정수현	오빠	2010.4.11. 적량면 서리 자택	목격	진술 조서	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빠가 잡혀갈 당시 신혼이었는데 잡혀가고 난후 올케 언니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아이가 태어난 후 혼인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
9	6168	이성수 (1935)	이덕성	형	2006.10.23.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이 사망하여 신청서를 정리함.</li> <li>• 1950년 한국전쟁 때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신청인의 형 이덕성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함.</li> </ul>
10	6174	정필복 (1926)	심은섭	남편	2010.4.11. 적량면 동산리 자택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남편 심은섭을 순경 두 명이 와서 연행하는 것을 목격함.</li> <li>• 남편을 왜 잡아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며, 이후 소문에 의하면 구례 쪽으로 데려가서 많이 죽었다는 말이 있었음.</li> <li>• 남편이 잡혀가고 나서 시숙 심정섭도 잡혀갔으며, 비슷한 시기에 마을에서 6~7명이 잡혀간 후 모두 소식이 없음.</li> </ul>
11	6175	이금악 (1936)	이인호	오빠	2010.4.10. 적량면 동리 이정마을회관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6월 1일이 단옷날인데 약 한 다고 썩을 뜯어 놓고 집에 있었는데 저녁 때 경찰들이 연행하였다고 함.</li> <li>• 오빠가 연행될 당시 어머니가 목격하였으며, 어머니의 외사촌오빠에게 오빠의 행방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화개면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면회를 갔으나 만나지 못함.</li> <li>• 사건 당일 같은 마을 공은택이 함께 잡혀갔으며, 비슷한 시기에 마을사람들 여러 명이 잡혀간 후 소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소문에 의하면 잡혀간 사람들은 화개면의 모래밭에서 총으로 쏘 죽었다는 말이 있음.</li> </ul>
12	6176	조기열 (1934)	조성조	부	2008.2.22. 적량면 동리 동촌마을회관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신청인이 눈에 일하러 나갔을 때 군인들이 집으로 와서 아버지를 연행하여 화개 담배창고로 데려 갔다고 어머니께 전해 들음. 아버지가 잡혀간 후 마을 아주머니들이 면회 갈 때 여동생이 함께 가서 담배창고에서 아버지를 만났다고 함.</li> <li>• 마을에서는 당시에 8명이 잡혀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인들에게 모두 죽은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13	6177	정봉점 (1923)	정을묘	시숙	2008.7.4. 적량면 동리 동촌마을회관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시숙이 마을사람들과 함께 잡혀가 화개 담배창고에 잡혀갔다가 소식이 없음.</li> <li>• 당시 시숙의 처가 마을사람들과 함께 화개 담배창고로 면회를 갔었다고 함.</li> </ul>

제 7 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sup>6)</sup>	주요 진술
14	6178	최시점 (1939)	최성덕	부	2008.4.15. 하동군청 청문실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은 최권호이나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누나 최시점이 대신 진술함.</li> <li>• 1950년 적량면 서리에 거주하던 아버지와 마을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됨.</li> <li>• 마을반장이 집에 찾아와서 지서에서 아버지를 오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하여 아버지에게 전하자 아버지가 지서로 간 후 행방불명됨.</li> </ul>
15	6179	정봉기 (1944)	정환삼	부	2008.2.22. 적량면 동리 동촌마을회관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군인과 민간인이 집으로 와서 아버지와 마을사람들을 연행하여 군인들이 주둔하던 화개면에 구금하였음.</li> <li>• 어머니와 마을 아주머니들이 면회를 하고 돌아온 며칠 후 다시 찾아갔을 때 아무도 없었다고 함.</li> </ul>
16	6180	조병환 (1940)	심재섭	장인	2008.2.22. 적량면 동리 동촌마을회관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심감애를 대신하여 사건 당시 같은 마을에 살던 남편 조병환이 진술함.</li> <li>• 1949년 장인어른을 포함하여 같은 마을에서 여러 명이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던 군인들에게 잡혀 화개로 감.</li> <li>• 당시 마을 아주머니들이 면회를 다녀왔으나 잡혀간 사람들은 모두 군인들에게 죽었다고 들었음.</li> </ul>
17	6181	김윤자 (1945)	심정섭	시부	2008.8.18.	전문	통화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시아버지 심정섭과 동생 심은섭 그리고 같은 마을에서 여러 명이 잡혀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시어머니가 생전에 말씀을 하심.</li> </ul>
18	6182	정은채 (1944)	정순경	부	2008.7.1. 진주시청 감사실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와 아버지를 찾아 눈에 있던 아버지를 데리고 옴.</li> <li>• 군인들은 장롱을 뒤지기도 하고 아버지를 구타한 후 구례(혹은 화개)의 창고로 연행해 갔음.</li> <li>• 같은 마을에서 아버지보다 며칠 전에 연행된 사람들이 있었음.</li> </ul>
19	6183	하유시 (1944)	하청일	부	2008.4.15. 하동군청 청문실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친은 금남면 갈사리에 거주하다가 고절리로 이사 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이 부친을 잡아간 후 소식이 없음.</li> </ul>
20	6184	김득근 (1949)	김광명	부	2006.10.23.	전문	통화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와 통화보고서를 참조하였음.</li> <li>• 적량면 서리 동점 마을에 거주하던 중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연행되어 행방불명되었음.</li> <li>• 마을에서 함께 연행된 사람들도 돌아오지 못함.</li> <li>• 현재 호적 정리도 안 되어 있음.</li> </ul>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sup>6)</sup>	주요 진술
21	6185	공성택 (1947)	이삼용	처남	2006.10.23.	전문	통화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경찰에게 연행되어 잡혀갔으며, 같은 마을에서 여러 명이 잡혀간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잡혀간 사람들은 광양 쪽 꽃뱅이재 부근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시신을 수습하지는 못함.</li> </ul>
22	6186	김복금 (1929)	심두섭	남편	2010.1.31. 고전면 신월리 사막마을회관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은 심재환이나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모(母) 김복금이 진술함.</li> <li>• 1949년 집에서 보리타작을 하고 있던 남편을 고전지서 순경이 와서 연행한 이후 행방불명.</li> <li>• 같은 시기 마을에서 7~8명이 연행되어 고전지서에서 구타당하고 하동경찰서로 넘겨졌는데 몇 명은 살아오고 나머지는 돌아오지 못함.</li> </ul>
23	6503	박한기 (1949)	박삼용	부	2008.8.7.	전문	통화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년 경찰과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와 주민들을 몇 사람 잡아갔다고 함.</li> <li>• 어머니가 하동경찰서로 면회를 갔으나 면회시켜주지 않아 며칠 후 다시 면회를 갔으나 흔적도 없었다고 함.</li> <li>• 소문에 따르면 광양 매티재 등에서 사망했다는 말이 있음.</li> </ul>
24	8732	홍승원 (1924)	홍승윤	제	2010.1.27. 옥종면 정수리 마을회관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은 홍성구이나 사건내용을 알고 있는 부(父) 홍승원이 진술함.</li> <li>• 1950년 마을반장이 나오라고 해서 홍승윤이 나갔는데 길가에 지서 순경이 기다리다가 차에 태우고 옥종지서로 감.</li> <li>• 동생이 잡혀간 날 옥종지서에 불러갔는데 갇혀 있던 30여 명은 차에 싣고 하동경찰서로 가고 본인은 풀려났다고 함.</li> <li>• 소문에 따르면 당시 잡혀간 사람들은 진주 쪽으로 가서 죽었다는 말이 있음.</li> </ul>
25	9289	김원석 (1937)	김도중	부	2008.8.19.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집에 있던 아버지를 하동경찰서 경찰이 연행하여 구금되었을 때 어머니가 면회를 하려고 했으나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음.</li> <li>• 그런 후 경찰서에 있던 사람들을 남원군부대로 넘겼다는 소식을 들었음.</li> <li>• 함께 남원에 잡혀갔다가 풀려난 이영춘과 김두태에 의하면 군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나간 후 소식이 없다고 함.</li> </ul>
26	9434	황국선 (1949)	황월봉	부	2008.6.11. 부산시 남구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년 아버지는 좌익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따라 집을 나갔다가 며칠 후 돌아와서 하동경찰서에 자수함.</li> </ul>

제 7 권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sup>6)</sup>	주요 진술
26	9434	황국선 (1949)	황월봉	부	2008.6.11. 부산시 남구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동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아버지는 군인들에게 끌려가 하동을 섬진강 모래사장에서 총살되었다고 함.</li> </ul>
		황규정 (1930)						형
27	7306(1)	최규삼 (1950)	최수열	삼촌	2008.5.15.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삼촌은 북한지서 순경에게 연행되어 하동경찰서에 있다가 진주형무소로 넘겨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li> </ul>

산청

1	3147	서봉석 (1961)	신원미상		2006.4.25.	전문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산 외공 양민학살 진상규명대책위원회(신청인 서봉석)에서 진실규명 신청함.</li> <li>• 1951년 2월~3월경 군용트럭을 앞세워 버스 11~14대에 민간인 수백여 명을 싣고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 소정골 앞에서 하차 시킨 후 끝자기로 데려가서 집단 사살했음.</li> <li>• 주민들의 증언으로 학살현장을 확인한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00년 5월 발굴을 통해 희생자의 신원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신원을 밝히지 못함.</li> <li>• 대책위원회에서는 희생현장 및 미발굴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였음.</li> </ul>
2	3762	문종길 (1944)	문홍택 박씨	종백숙부 3종조모	2008.2.13.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홍택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는데 국민보도연맹 사건 때 피신하여 희생당하지 않았음.</li> <li>• 종백숙부 문홍택과 3종조모 박씨는 도피 중이었는데 종백숙부 문홍택의 처남 임상구의 주선으로 자수를 했는데, 1952년 3월 9일(음력 2월 14일)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데려간 후 소식이 없음.</li> </ul>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sup>6)</sup>	주요 진술
3	3763	문종길 (1944)	문홍각	부	2008.2.13.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친은 국민보도연맹 사건 때 피신하여 희생당하지 않았으나 어머니와 동생이 부친을 대신하여 신청을 안개골에서 친척들과 함께 경찰에게 집단사살당함.</li> <li>• 1951년 12월 24일(음력 11월 26일)도 피중이던 부친이 신청을 묵곡리 조조부댁으로 오자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사살당함.</li> <li>• 사살 후 다시 돌아온 경찰은 사망자의 두상을 절단하여 가지고 감.</li> <li>• 이후 조부가 벼 두 가마를 주고 부친의 두상을 찾아와 시신과 함께 묘지에 묻음.</li> </ul>

## 나. 참고인 조사

### 1) 피해관련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건 경위를 목격하였거나 전문(傳聞)을 통해 알고 있는 피해관련 참고인을 조사하였다. 피해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피해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거창							
1	358(3)	맹태호	박무임 (여, 8세)	주민	전문	2009.10.21. 거창군청 감사 작업실,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이 발생한 준전리에서 태어나 자랐고 뒤에 정석조와 혼인하여 시할머니로부터 시삼촌(정덕용)의 희생사실을 들었음.</li> <li>• 산에서 내려온 빨치산에게 협조하였다는 이유</li> </ul>

- 6)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형태는 진술조서·진술녹취·면담보고·전화통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진술조서'는 조사관이 작성한 후 진술인의 서명 및 간인을 받은 자료이며, '진술녹취'는 진술인의 동의 후 진술내용을 녹취한 자료이고, '면담보고'는 진술인의 동의 후 면담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고, '전화통화'는 진술인의 동의 후 전화 통화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다.
- 7) 신청사건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분류되었으나 조사결과 1949년 군경희생사건으로 같은 마을에서 함께 경찰에게 연행되어 희생된 이성달(사건번호 다-2577)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하여 진실규명 결정(2008.12.16.)되었다.

제 7 권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1	358(3)	맹태호	박무임 (여, 8세)	주민	전문	2009.10.21. 거창군청 감사 작업실, (진술조서)	로 동네 젊은 사람들이 안의지서로 끌려가서 희생 당했다고 들었으며, 맹판호의 형 맹태호 등 7명이 제일 먼저 죽었고, 자신의 시삼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뒤에 끌려가서 죽었음.
2	358(3)	이현욱	맹판호 (남, 13세)	주민	목격, 시신 수습	2010.1.14. 거창읍내 식당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함양군 안의면 춘전리 주민들이 재산공 비들에게 식량제공, 물품운반 등의 협조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에 걸쳐 안의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안의면 대밭골, 가매실, 기타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두 22명이 희생되었음.</li> <li>• 음력 7월 8일에 마을주민 7명(맹태호, 이현욱, 백창순, 박재규, 정진국, 심재섭, 김종환)이 경찰에게 연행되어 안의면 안의국민학교 뒷산 대밭골에서 경찰에게 사살당함.</li> <li>• 소문을 듣고 본인을 비롯한 유족들이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였음.</li> </ul>
3	358(3)	백창순					
4	358(3)	박재규					
5	358(3)	정진국					
6	358(3)	심재섭					
7	358(3)	김종환					
8	358(3)	백용순	맹판호 (남, 13세)	주민	전문	2010.1.14. 거창읍내 식당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함양군 안의면 춘전리 주민들이 재산공 비들에게 식량제공, 물품운반 등의 협조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에 걸쳐 안의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대밭골, 가매실, 기타 알 수 없는 곳에서 22명이 희생되었음.</li> <li>• 안의국민학교 뒷산 대밭골에서 7명이 희생된 이후, 춘전리 젊은 사람들이 수차에 걸쳐 안의지서에 끌려가서 희생 또는 행방불명되었음.</li> <li>• 대밭골에서 희생된 사람은 시신이 수습되었으며, 본인도 형(맹태호)의 시신을 수습하였음.</li> <li>• 그 후에 희생된 분들은 일부는 시신을 수습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경찰의 방해로 인하여 시신을 찾지 못하였음.</li> <li>• 2003년도 거창군의회에서 조사할 당시 본인을 비롯한 유족들이 진술하였고 현재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음.</li> <li>※ 춘전리 주민 22명의 희생사실은 거창군의회에서 2003년도에 조사한 『한국전쟁전후 거창군 관내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 보고서』와 1960년도에 함양군에서 제4대국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에 기록되어 있음. (조사관 註)</li> </ul>
9	358(3)	김상출					
10	358(3)	이성록					
11	358(3)	이춘복					
12	358(3)	윤기순					
13	358(3)	이금행					
14	358(3)	김정곤					
15	358(3)	정덕용					
16	358(3)	김만대					
17	358(3)	이영이	임숙희 (여, 14세)	생질녀	전문	2009.11.20. 참고인 자택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삼촌이 일본에서 귀국한 지 2일 만(1949년 음력 2월 27일)에 경찰에 연행된 후 동생 이사용의 행방을 말하라는 취조와 고문을 당하다가, 거창군 북상면 방향으로 트럭에 실려 가서 희생되었음.</li> <li>• 이 소식을 듣고 참고인의 외조부(희생자의 부</li> </ul>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17	358(3)	이영이	임숙희 (여, 14세)	생질녀	전문	2009.11.20. 참고인 자택 (면담보고서)	친)가 희생장소를 수소문하여 북상으로 찾아가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강력한 제지로 수습하지 못하였음.	
18	868	박윤희	민경조 (여, 20세)	질부	전문	2009.10.21. 거창군청 감사 작업실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생자의 조카 박현수와 16세에 결혼하여 같은 마을에 살았음.</li> <li>빨치산들이 총으로 위협하면서 주민 박현영에게 대동청년단장의 집을 알려달라고 하여 손으로 집을 가리켰다고 함.</li> <li>청년단장이 이들에게 살해당하자, 그의 부친이 경찰에 신고하였음. 그러자 경찰은 박윤희 등 3명을 거창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를 한 후 경찰의 인솔 하에 마을로 돌아오던 중이었음.</li> <li>이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청년단장 부친이 달려와서 이들을 죽이라고 하자 경찰은 박윤희를 대검으로 찔러 살해하였고, 두 사람은 풀어주었다고 박기호, 이한호로부터 들었음.</li> <li>남편이 박윤희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렀음.</li> </ul>	
19	4112	유봉태	엄창주 (남, 14세)	이웃	전문	2009.10.22, 10.10.9.29. 진술인 집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봉태의 희생사실은 주로 유봉태의 처 강순임으로부터 들었음.</li> <li>유봉태는 평범한 농민이었는데, 빨치산의 협박에 의해 집을 옮겨준 사실이 있었다고 함. 이 때문에 신원지서로 끌려가 매를 많이 맞았음. 걸을 수 없어 가족들에게 업혀 오기도 했다고 함.</li> <li>이를 견디지 못해 1949년 가을 집을 나갔으나 얼마 후 경찰에 잡혀 총살당했던 것임.</li> <li>유봉태가 살해당한 곳은 신원면 내 남상면 경계 부근이었으며 당시 마을주민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li> <li>비슷한 시기에 이웃한 남상면 춘진마을에서도 24명이 안의지서 경찰에 의해 희생당한 사실이 있음.</li> </ul>	
20			김진수 (남, 14세)	이웃	전문	2009.9.29. 엄창주 집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봉태는 1949년 가을 경찰의 괴롭힘을 피해도피했으나 그 직후 신원지서 경찰에게 잡혀 남상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갈집재에서 총살당했음.</li> <li>그 사실은 당시 마을에 살던 주민들은 모두 아는 것임.</li> <li>시신은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매장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당시 누가 수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음.</li> </ul>	
<b>함양</b>								
1	953	공기홍	박종갑 (남, 22세)	주민	전문	2009.5.20. 휴천면 금반리 노인정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9년 3월경 휴천지서 형사 김동원이 우리 마을의 표기수, 조길동, 광병석, 공기홍(마을에서는 공학만으로 부름을 연행하였는데, 공기홍은 경찰의 고문과 구타로 이를 먼저 사망하고 나머지 세</li> </ul>	
2	3086	광병석			목격			

제 7 권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1	953	공기홍	박종갑 (남, 22세)	주민	전문	2009.5.20. 휴천면 금반리 노인정 (진술조서)	<p>명은 당시 군인들이 휴천지서 인근 포두재 골짜기에서 사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당에서 마을로 오던 길에 포두재 골짜기에서 광병석의 가족들이 총에 맞은 광병석을 옮기는 것을 보고 도와주었는데 집으로 오기 전에 사망하여 인근에다가 매장하였음.</li> </ul>
2	3086	광병석			목격		
3	1978	석성수	권병호 (남, 26세)	주민	목격	2008.3.19. 마천면사무소 복지상담실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4~5월경 마천면 추성리 민보단장이던 석성수와 감찰부장이던 본인 등 민보단원을 군인들이 연행하여 남원시 산내면 산내지서로 데려감.</li> <li>• 지서에서 빨치산에게 협조했는지 여부에 대해 취조를 한 후 민보단 감찰부장이던 본인과 민보단장이던 석성수를 풀어줌.</li> <li>• 석성수와 본인은 집으로 오던 중 빨치산을 토벌하던 군인들을 만났는데, 군인들이 민보단장이냐고 물어 뒤에 오는 사람이 민보단장이라고 알려준 이후 석성수의 행방을 알 수 없음.</li> </ul>
			문창권 (남, 19세)	주민	전문	2010.4.13. 마천면 추성리 자택 (면담)	
4	1981	조성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사건. 참고인 찾지 못함(신청인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참고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진술을 거부함.)</li> <li>※진실규명대상자가 거주하던 곳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관련 있는 특정 성씨의 영향력이 강한 집성촌이며, 현재까지 그 영향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과거 사건관련 진술을 회피함.(조사관 註)</li> </ul>
5	2877	한상훈	한병일 (남, 7세)	주민	전문	2010.4.13. 백전면 경백리 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생자의 집과 10~20미터 거리에서 살았음.</li> <li>• 마을사람들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우리 마을에서 한병일과 하모(某)가 경찰에게 잡혀간 후 행방 불명되었다고 함.</li> <li>• 신청인 한상훈과는 동갑이며 같은 마을에서 자랐음.</li> <li>• 한상훈의 부친 한병일이 6·25 때인가 그 전해인가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시기는 잘 모르겠음.</li> </ul>
			정순조 (남, 11세)	주민	전문	2010.4.13. 백전면 경백리 마을회관 (진술조서)	
6	3580	홍순철	신판순 (여, 14세)	주민	전문	2009.6.17. 서하면 운곡리 옥환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같은 마을에 살던 이성달과 함께 지서로 잡혀가서 사망함.</li> <li>• 당시 마을에는 빨치산이 나타나 마을사람들의 식량을 빼앗거나 짐을 운반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음.</li> <li>• 홍순철과 이성달은 마을에 빨치산들이 나타난 다음 지서로 잡혀갔음.</li> </ul> <p>※함께 잡혀갔던 이성달(사건번호 다-2577)은 2008.12.16.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됨.</p>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7	5116	김채규	김옥규 (남, 12세)	사촌	전문	2010.2.9. 휴천면 문정리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8년 12월 사건이 발생하던 날 마천에서 남원으로 들어오는 군인들을 보았는데 당시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왔음.</li> <li>• 김채규는 당시 문정국민학교에서 사망하여 시신을 수습했으며, 마을에서 장례를 치러 모두 알고 있음.</li> </ul>
			유광수 (남, 11세)	주민	목격	2010.2.9. 휴천면 문정리 자택 (진술조서)	
8	6809	곽봉준	이동식 (남, 27세)	특공대	목격	2008.2.18. 마천면사무소 복지상담실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4월경(음) 마천면 가흥리 당흥부락 냇가에서 군인들이 민간인 네사람을 잡아서 물에 담궜다가 꺼냈다가 하는 것을 목격함.</li> <li>• 이후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마천면 가흥리 토롱골 골짜기에서 사살했다고 함.</li> <li>• 군인들에게 잡혀 있던 사람 중 곽봉준과 윤모(某)는 아는 사람이었으나 나머지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었음.</li> </ul>
9	8741	강위철	장계선 (여, 15세)	주민	전문	2010.2.9. 휴천면 문정리 자택(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8년 겨울 진실규명대상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군인 3명이 잡아간 후 소식이 없었으며, 시신도 수습하지 못했다고 들었음.</li> </ul>
10	9975	김원대	고광수 (남, 22세)	주민	전문	2010.5.24. (통화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방 후 일본에서 돌아온 김원대는 마을청년들과 좌익활동을 함.</li> <li>• 1948년 여순사건 발생 후 마을청년들이 죽창을 들고 보초를 사근 했는데 어느 날 경찰에게 연행되어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 근처에서 사살되었다고 함.</li> <li>•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시신을 찾으러 갔으나 찾지 못함.</li> </ul>
			이도식 (남, 18세)	주민	전문	2010.5.24. (통화보고)	
11	10169	신호영 신재현					<p>※신호영, 신재현과 함께 끌려갔다가 생존한 동생 신동천을 통해 참고인을 찾고자 했으나 사건 당시를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럽고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여 참고인을 찾지 못함 (조사관 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0년 함양군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에 희생자 명단 있음.</li> </ul>
12	2604(1)	전영구	임광택 (남, 20세)	주민	전문	2009.6.12. 안의면 상원리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여름, 전영구는 논물을 보러 나갔다가 경찰에게 연행되어 사망함.</li> <li>• 당시 전영구의 부친이 시신을 수습하여 묘를 썼음.</li> </ul>

제 7 권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13	3360(1)	권구현 권계현	권형순 (여, 20세)	사촌 오빠	전문	2009.6.19. 함양읍 교산리 855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사촌오빠 권구현이 트럭에 실려 당그래 산 쪽으로 실려 가는 것을 남편 이종수가 목격함.</li> <li>• 당시 당그래산 쪽으로 잡혀가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li> <li>•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남편 이종수도 같은 해 경찰에게 연행되어 사망했기 때문임.</li> </ul>				
<b>하동</b>											
1	733	정윤희	정우화 (남, 25세)	친척 (10촌)	전문	2010.1.27. 옥중면 대곡리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년 7월경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해 있던 진실규명대상자가 청암면 순경들에게 잡혀갔다는 연락을 받고 친척들이 함께 방문함.</li> <li>• 청암면에서 연행되어 사실현장에서 어깨에 총을 맞고 살아난 김원석은 청암면에서 열댓명을 경찰버스에 싣고 갔으며, 이들은 돈박고개에서 사살했다고 함.</li> </ul>				
2	3232	정흥덕	정자호 (남, 25세)	7촌	목격	2010.1.28. 금남면 대치리 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4~5월경 정흥덕과 정태석이 군인들에게 연행되는 것을 목격하였음.</li> <li>• 당시 군인들은 마을사람들을 김양국민학교에 모이라고 한 후 호명한 사람들을 트럭에 싣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여러 명이 있었음.</li> </ul>				
3	3233	정태석		8촌	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잡혀간 사람들은 하동경찰서에 수감된 이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함.</li> </ul>				
				8촌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민석의 경우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잡혀가지 않았지만 같은 해 경찰에 연행되어 행방불명되었음.</li> </ul>				
4	3676	정민석	정희대 (남, 30세)	7촌	전문	2010.1.28. 진교면 양포리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민석은 7촌조카인데 좌익활동 관련해서 서울로 도피했다가 같은 마을에서 우익활동을 하던 친척 정정석에게 편지를 보냈다가 소재지가 파악되어 하동경찰이 서울에서 연행함.</li> <li>• 연행된 정민석은 하동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 후 가마니에 덮여서 노랑 앞바다에서 수장되었다고 마을에서 소문이 났었다고 함.</li> </ul>				
5	6158 6161	강윤석 정사현	정도기 (남, 16세)	주민	전문	2010.2.1. 적량면 동리 동촌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마을사람들이 경찰에게 잡혀간 후 연락이 없음.</li> <li>• 마을에서 잡혀간 사람들은 강윤석, 심정섭·심은섭 형제, 심재섭, 정환삼, 정을묘, 조성조 등이 있으며 아랫마을 사람들도 잡혀간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6176	조성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시 마을에서 경찰에게 잡혀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은 최태용이 있었음.</li> </ul>				
	6177	정을묘									
	6179	정환삼									
	6180	심재섭									
	6181	심정섭									
	6182	정순경					정권수 (남, 15세)	주민	전문	2010.2.1. 적량면 동리 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마을에 경찰들이 자주 왔었으며, 20~30대의 청년들을 많이 잡아갔음.</li> <li>• 마을에서 잡혀간 사람들은 강윤석, 정사현·정수현 형제, 이삼용, 정순경, 심정섭·심은섭 형제,</li> </ul>
	6185	이삼용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5	6158 6161 6176 6177 6179 6180 6181 6182 6185	강윤석 정사현 정수현 조성조 정을묘 정환삼 심재섭 심정섭 정순경 이삼용	정권수 (남, 15세)	주민	전문	2010.2.1, 적량면 동리마을회관 (진술조서)	정환삼, 정을묘, 조성조, 이인호씨 등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시 경찰들은 칼빈총과 99식 총을 가지고 다녔고, 보조로 다니던 사람들은 99식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음.</li> <li>• 마을사람들이 잡혀가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경찰들이 다녀간 후 저녁이나 아침이 되면 마을에서 누구누구가 잡혀갔다는 말이 돌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음.</li> <li>• 당시 마을에서 잡혀갔다가 살아온 사람이 최태용이 있었는데, 최태용은 생전에 화개면 담배창고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났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음.</li> <li>• 나는 경주 정씨로 희생자 중 정을묘와는 9촌간이며, 다른 정씨들은 연일 정씨로 친척이 아님.</li> </ul>															
								정양기 (남, 15세)	주민	일부 목격 및 전문	2010.2.1, 적량면 동리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봄 무렵부터 가을경까지 까만색 옷을 입은 경찰들과 누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칼빈총과 99식 총을 들고 마을에 들어와 마을사람들을 연행함.</li> <li>• 당시 잡혀간 사람들은 경방단을 하던 강윤석, 정사현·정수현 형제(9촌), 이삼용, 정순경, 심정섭·심은섭 형제(당고모 아들), 심재섭, 정환삼(7촌), 정을묘, 조성조, 이인호씨 등임.</li> <li>• 이 중 심은섭씨는 논에서 일하던 중이었으며, 정환삼, 강윤석, 조성조씨는 마을 앞에서 잡혀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함.</li> <li>• 잡혀간 사람들은 하동경찰서로 갔으며, 이후 화개면의 담배창고에 구금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이후 소식이 없음.</li> </ul>										
													강대섭 (남, 11세)	주민	일부 목격 및 전문	2010.2.2, 적량면 서리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년 여름 같은 마을인 도장골에 살던 강대선, 유철우, 강점복, 황용덕·황용구 형제, 강대익이 경찰에게 연행되었으며, 이들이 잡혀가기 10여 일 전에 강대운·강대엽 사촌형제, 이덕성(마을에서는 이태수로 불림), 최정섭, 강원수, 유용덕이 잡혀감.</li> <li>• 당시 경찰 4~5명이 총을 들고 마을에 나타났으며, 지금의 마을회관 자리에서 사람들을 집결 시킨 후 적량지서 방향으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함.</li> <li>• 마을에서는 국민보도연맹 명단을 가지고 와서 잡아갔다고 소문이 났음.</li> <li>• 도장골 사람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윗마을인 동점마을의 박삼용, 김광명, 최성덕이 경찰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음.</li> </ul>					
																		서병춘 (남, 14세)	주민	전문	2010.2.2, 적량면 서리 1035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년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해서 도장골에 살던 강점복, 강대선, 이덕성(마을에서는 이태수라고 불림)과 윗마을인 동점부락의 박삼용, 김광명, 최성덕을 적량지서 순경들이 연행하였음.</li> </ul>

제 7 권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6	6159 6160 6168 6178 6184 6503	강점복 강대선 이덕성 최성덕 김광명 박삼용	서병춘 (남, 14세)	주민	전문	2010.2.2, 적량면 서리 1035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잡혀간 사람들은 이후 연락이 없으며, 소문에 의하면 하동경찰서로 넘겨졌다가 진주 쪽으로 끌려갔다는 말도 있고 광양 매티재에서 죽었다는 말도 있음.</li> <li>• 최성덕, 김광명, 박삼용, 이윤기, 이기태, 박석주, 민정기, 박종훈은 동점부락에서 함께 살던 주민인데 인민군이 내려오기 한 달 전 경찰에게 연행되었음.</li> <li>• 당시 경찰 대여섯 명은 마을에 와서 누구누구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호명한 사람들을 한곳에 모아 놓고 데려감.</li> <li>• 잡혀간 사람들은 하동에서 전라도 넘어가는 매티재에서 한군데에 몰아넣고 몰살시켰다는 소문이 있었음.</li> </ul>																							
			박달용 (남, 21세)					주민	목격	2010.2.2, 적량면 서리 동점마을회관 (진술조서)																				
			7	6183	하청일	정명관 (남, 19세)					주민	목격	2010.2.5, 적량면 고절리 안성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년 인민군이 하동에 내려오기 한 달 전 경찰에게 연행됨.</li> <li>• 경찰은 전쟁이 발발하니까 빨치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청년들을 모아놓고 밥을 해달라고 한 후 날이 새자 “우리는 경찰이다” 라고 하면서 마을청년들을 하동경찰서로 연행하였으며, 연행 현장에서 신성용씨는 빨갱이 주모자라면서 사살함.</li> <li>• 당시 연행된 마을사람들은 고성포, 노정열, 박경만, 송재욱, 김씨(김갑돌의 아버지), 이남두, 박성복 등이었는데 이들이 연행되는 것을 목격함.</li> <li>• 진실규명대상자 하청일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1차로 잡혀간 며칠 후 다시 마을로 온 경찰 두 명에게 연행당하는 것을 목격함.</li> <li>• 잡혀갔다가 살아 돌아온 고성포는 연행된 사람 중 하동경찰서에서 전주형무소로 보낼 사람은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치장에 계속 있다가 광양 매티재로 데려가 사살했는데, 본인은 매티재에서 살아난후 남해로 도망갔다가 군에 자원입대했다고 생전에 말했음.</li> </ul>																
															8	6186	심두섭	설남열 (남, 12세)	주민	전문	2010.2.1, 고전면 신월리 사막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두섭은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1949년 경찰에게 잡혀간 후로 소식이 없음.</li> <li>• 같은 해 마을사람들이 여러 명 경찰에게 잡혀갔는데 몇 사람은 살아오고 나머지는 소식이 없음.</li> <li>• 마을사람들이 경찰에게 잡혀간 이유는 사상 문제로 잡아갔다는 말들이 있었음.</li> </ul>								
																							9	8732	홍승윤	정기화 (남, 20)	주민	목격	2010.1.27, 옥종면 정수리 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승윤(마을에서는 홍장수라고 불렀음)은 함께 서당을 다녔던 사람인데 1950년 여름 옥종지서로 잡혀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본인은 홍승윤이 잡혀간 직후인 1950년 7월 10일경 군대에 입대함.</li> </ul>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10	9289	김도중	정용기 (남, 22세)	주민	전문	2010.4.16. 양보면 우복리 자택 (면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마을에서 김도중하고 몇 명이 경찰에게 연행되었는데 한 사람이 살아 돌아와 같이 간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었다고 했음.</li> </ul>
11	9434	황월봉	조한조 (남, 18세)	주민	전문	2009.6.4. 금남면 계천리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년 인민군이 하동을 점령했다가 후퇴한 후 하동경찰서로 가서 자수하였는데 군인들이 하동강가로 끌고 가서 죽였다는 말이 있었음.</li> <li>• 시신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황규태 (남, 13세)	사촌	전문	2010.1.28. 금남면 계천리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월봉은 전쟁 전에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해 있었는데 보도연맹원 소집 때 덕천지서로 불려갔다가 빠져나옴.</li> <li>• 1950년 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이 하동을 점령했을 때 황월봉은 인민군을 따라다님.</li> <li>• 인민군 치하에서 마을 구장, 면사무소 산업계장 등 우익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황월봉씨 때문에 많이 살아남.</li> <li>• 국군이 수복했을 때 하동경찰서에 자수를 하였는데, 어느 날 하동 송림으로 불려나가 사살되었다는 소문이 있음.</li> </ul>
12	7306(1)	최수열	김주 (남, 22세)	주민	전문	2010.2.5.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최순열<sup>8)</sup>은 1949년 북한지서 순경에게 연행됨. 연행과정은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최순열이 잡혀가고 나서 마을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알고 있음.</li> <li>• 최순열은 북한지서로 연행된 후 하동경찰서로 넘겨졌다는 말이 있었고 그다음 소식은 없음.</li> <li>• 최순열의 동생 최홍열과 같은 마을 주민 김호영은 다음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경찰에게 연행된 후 소식이 없음.</li> </ul>
			황두복 (남, 23세)	주민	전문	2010.2.4. 북천면 서황리 마을회관 (면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순열 형제와 같은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며, 한국전쟁 전후에 경찰에게 연행된 후 소식이 없다는 것은 마을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임.</li> <li>• 하지만 경찰에게 잡혀간 정확한 시기는 잘 알지 못함.</li> </ul>
<b>산청</b>							
1	3147	신원미상	박병용 (남, 16세)	주민	목격	2006.7.6. 시천면 덕산 문화의 집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 당시 시천면 외공리에 거주하였는데 군인들이 버스 16대에 민간인 400여 명을 싣고 왔음.</li> <li>• 희생현장은 마을에서 200미터 떨어졌는데 두 시간 정도 총소리가 났음.</li> <li>• 현장을 가보니 구덩이를 파서 시신들을 묻었는데 흙더미 속에서 시신들이 보여서 이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매장했음.</li> </ul>

제 7 권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2	3762	문홍택 박氏	○○○ (남, 22세)	특무대	전문	2010.4.7. 단성면 호리 자택 (면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곡리 살던 문홍택과 그 딸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입산했는데 나중에 경찰에게 잡혔다고 들었음.</li> <li>• 당시에는 도피자들이 잡히면 그 지역에서 처리했음.</li> </ul>
3	3763	문홍각	강재창 (남, 18세)	주민	목격	2009.5.29. 산청읍 목곡리 431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종길의 아버지 문홍각이 도피했다가 집에 왔는데 특무대원들에게 사살당함.</li> <li>• 문홍각을 사살한 후 특무대원은 돌아갔다 잠 시뒤 돌아와 머리를 잘라 산청으로 가지고 갔는데 그중에는 국민학교 동창이 있었음.</li> <li>• 희생장소와 우리 집이 가까이 있었는데 당시 문홍각의 시신을 가마니로 덮어 놓은 것을 목격함.</li> </ul>
			문정칙 (남, 21세)	친척 (9촌)	목격	2010.5.24. (통화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홍각은 친척인데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원 소집 때 도피하였다가 친척집에 왔는데 특무대원들에게 사살당함.</li> <li>• 문홍각을 사살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특무대원이 문홍각의 목을 자른 후 지게에 지고 따라오 라고 하여 산청읍으로 간 적이 있음.</li> </ul>

2) 군경관련 참고인 조사

사건 당시 서부경남지역(지리산지구)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에 참가하였던 군인과 경상남도지방경찰국과 산하 거창, 하동, 함양경찰서에 근무하였던 경찰, 의용경찰, 특공대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군경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군경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1	차○○ (28세)	제5사단 제3연대 군인	2008.8.25. 함양읍사무소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안북도 박천군 출신으로 월남하여 육사7기로 입 관 후 제5사단 제3연대로 배속되어 지리산지구에서 공비 토벌함.</li> <li>• 1949년 제3연대 3대대는 함양국민학교에 주둔 하였으며, 대대장은 한충렬이었으며, 동기인 김철순이 대대 정보장교였음.</li> <li>• 당시 각 마을에서 민간인을 연행한 것은 주로 경찰 들이었으며, 심사한 후 즉결 여부를 결정하여 군인에게 넘김. 그러나 경찰이 민간인을 취조하더라도 군 정보과가 관장을 하였음.</li> </ul>	

8) 마을에서는 최순열이라고 불렀으나 제적등본 상에는 최수열이다.

##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1	차○○ (28세)	제5사단 제3연대 군인	2008.8.25. 함양읍사무소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 대대장, 정보장교의 지시로 부대원을 인솔하여 함양군 이은리 당그래산에서 민간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사살하였음.</li> </ul>	
2	송○○ (23세)	제5사단 제3연대 군인	2007.4.2.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제3연대 정보과에 근무할 당시 김시곤 대위, 이관식 중위가 있었으며, 김시곤 대위는 함양, 구례, 산청, 거창 등지에서 활동하였음.</li> <li>• 본인은 함양군 안의지서에서 몇 달간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음.</li> </ul>	
3	이○○ (21세)	제5사단 제3연대 군인	2007.8.9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연대 정보과장 김시곤은 산청, 함양을 자주 갔으며 전투사령부가 함양에 몇 달간 주둔하고 있었음.</li> </ul>	
4	조○○ (20세)	제5사단 제3연대 군인	2007.4.26.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연대 제3대대는 1949년 6~7월 이후 수 개월간 함양군에서 주둔하면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했음.</li> </ul>	
5	하○○ (25세)	함양경찰서 사찰계 형사	2010.4.8.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방 전 만주군으로 있다가 해방 후 경찰이 되어 여순사건 당시에는 함양경찰서 사찰계에서 근무함.</li> <li>• 여순사건 토벌작전 때에는 함양경찰서 사찰계 형사대장이었는데 군인출신 경찰이라 하여 국군 토벌대와 함께 다녔음.</li> <li>• 토벌 나온 제3연대장 함준호, 대대장 조재미, 정보장교 김시곤을 기억하며, 제19연대장 민병권, 제5연대장 장도영과도 빨치산 토벌작전을 다녔음.</li> <li>• 1949년 함양군 마천면 군자리에서 국군 제3연대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트럭에 싣고 와서 총검으로 살해할 때 현장에 있었으며,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총검으로 찔러 사망하지 않으면 나는 군인들과 함께 사격했음</li> <li>• 희생된 사람들은 경남 각 경찰서에 구금되었던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을 함양으로 모아 군인에게 인계하여 처리한 것임.</li> </ul>	
6	오○○ (21세)	함양경찰서 사찰계 형사	2008.7.21. 함양군 참전경우회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빨치산 토벌 나온 군인들은 함양국민학교, 상림숲, 안의면 등에 주둔하였으며, 당시 경찰은 국군의 지휘를 받음.</li> <li>•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직접 잡아오지 않고 경찰을 시켰으며, 잡아온 사람들을 남산에서 군인들이 희생시킨 사실이 있음.</li> <li>• 남산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을 때 경찰들이 경비를 서서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군의 지시에 따른 것임.</li> </ul>	
7	박○○ (23세)	함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2008.11.7.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순사건이 발생하고 반란군을 토벌하러 나온 국군 제3연대는 함양국민학교와 함양중학교 등에 주둔함.</li> <li>• 함양경찰서 경무계에서 근무할 때 유치장에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로 민간인들을 구금한 것을 목격했으며, 이들은 사찰계에서 취조를 함.</li> <li>• 잡혀온 민간인들은 사찰계 형사에게 취조당하고 이은리 당그래산에서 즉결처형된 것에 대해 외면적인 것은 알지만 내면적인 것은 사찰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임.</li> </ul>	

제 7 권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8	박○○ (23세)	함양군 안의면 특공대원	2008.11.6.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의 지서에서 특공대로 근무했음.</li> <li>• 당시 안의지서에서는 주민들을 연행하여 몽둥이로 때서 빨갱이로 만들어 총살시킴.</li> <li>• 특공대로 보초를 설 때 지곡면 사람들이 잡혀와 죽었던 것이 기억남.</li> <li>• 안의지서로 잡혀온 사람들은 경찰들이 많이 죽었는데, 함양경찰서로 넘겨서 죽이거나 지곡면 가는 방향의 공동묘지에서 많이 죽임.</li> </ul>	
9	박○○ (22세)	함양군 서하면 특공대원	2008.11.7.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하지서에는 악질 순경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서에 가두고 이삼일 동안 구타하여 죽거나 불구가 된 사람들이 있었음. 맞아 죽은 사람 중에는 산간마을에서 구장을 하던 문모(某)씨가 있었음.</li> <li>• 지서로 잡혀온 사람들 중 일부는 트럭에 실려 함양경찰서로 가는 것을 목격했으며, 잡혀간 이들은 죽거나 혹은 돈을 주고 풀려나기도 했음.</li> </ul>	
10	최○○ (23세)	함양군 휴천면 특공대장	2008.9.10.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사무소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순사건 발생 후 휴천면에서 특공대장을 맡았는데 대원은 약 200명이었으며, 휴천지서장의 지시를 받았음.</li> <li>• 휴천면의 통비분자들은 경찰이 체포했으며, 특공대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거나 체포된 민간인들을 휴천지서에서 함양경찰서로 이송하는 일을 함.</li> <li>• 경찰에게 넘겨진 민간인들은 함양읍 소재 남산에서 군인들에게 처형되었다고 알고 있음.</li> </ul>	
11	정○○ (26세)	하동경찰서 순경	2008.12.5. 화개면사무소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8년 12월 하동경찰서 외근직으로 발령 난후 반란군과 전투를 하거나 고지를 지키.</li> <li>• 악양면, 적량면, 화개면 등 마을의 빨갱이 프락치를 수색하러 다녔음.</li> <li>• 당시 99식 총을 소지했으며, 경찰은 제복을 입었고 한청단원은 평복차림이었음.</li> <li>• 경찰1~2명에 인솔하여 한청단원 10~20여 명을 데리고 다녔음.</li> <li>• 마을에 있던 빨치산 프락치들을 연행한 것은 특별한 시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함. 연행자들은 하동경찰서로 데려와 유치장에 구금시켰으며, 사찰계에서 조사를 함.</li> <li>• 국군은 하동 송림과 화개면 담배창고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국군 제3연대, 9연대, 15연대가 주둔하였음. 군인들이 주둔하던 화개면 담배창고 뒷산에서는 민간인 20~30여 명을 즉결처형했다는 말을 동료 경찰에게 들었음. 희생자들은 경찰들이 연행하여 군인들에게 넘겨준 사람들임.</li> <li>• 1950년 전쟁 발발 후 하동 국민보도연맹원들을 하동경찰서에서 여러 번 소집했으며, 외근중 차출되어 분대원 9명과 함께 쓰리쿼터 1대, 화물차 1대에 분승하여 보도연맹원 30~40명을 남원경찰서로 직접 이송한 적도 있음.</li> </ul>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12	김○○ (22)	하동경찰서 횡천지서	2009.6.4.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 당시 하동경찰서 횡천지서에 근무할 때 지리산으로 좌익토벌 하러 여러 번 갔음.</li> <li>• 당시 동네에 좌익악이 있었고 '좌익이다' 하면 맞아서 골병이 다 들었음.</li> <li>• 지리산, 백운산에서도 많은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횡천면 애치리에서도 보도연맹원으로 5~6명이 죽었음.</li> <li>• 당시에 좌익운동가 중 정관수, 0총오, 임상진, 송삼수 등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하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보도연맹에 많이 가입시키면 '간부' 가 되어 권력 행사를 할 수 있었음.</li> <li>• 보도연맹원을 횡천지서로 잡아들이면 하동경찰서로 다음날 이송했고 잡아온 사람 중에 경찰 친척이 있으면 풀어주기도 했음.</li> <li>• 경찰서장이나 지서장 중에 악독한 사람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죽었음.</li> <li>• 횡천면의 송삼수는 '송' 가들을 보도연맹에 많이 가입시켰고 이로 인해 '송' 가들이 많이 죽었음.</li> <li>• 보도연맹원 중 간부들을 먼저 죽이고 다음에 도장 짝은 사람들을 처형시켰음. 밤에 많이 죽었고 소리 소문 없이 죽여서 유족들은 시신은 거의 못 찾았음.</li> </ul>	
13	안○○ (22)	하동경찰서	2009.6.4.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술인은 당시 하동경찰서 전투경찰로 근무하고 있었음.</li> <li>• 당시 대한청년단이 보도연맹원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고 '이병호' 가 대한청년단 단장 이었음.</li> <li>• 보도연맹원들은 6·25전쟁 나고 경찰들이 후퇴하면서 많이 잡아갔는데 희생장소는 전라도라고 들었으나 구체적인 장소는 잘 모름.</li> <li>• 하동군 횡천면 학리에도 보도연맹원으로 죽은 '이용진' 이라는 사람이 있었음.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무슨 노래도 부르고 교육도 받고 좌익활동을 한 것 같다. 죽고 나서 보도연맹원에 가입해 활동을 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음.</li> </ul>	
14	정○○ (23)	하동경찰서	2009.6.4. 진실화해위원회	통화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술인은 1950년 6월 당시 하동경찰서에 근무했음.</li> <li>• 당시 횡천면 남산리에 이장을 보던 '정아권' 이라는 사람도 보도연맹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 죽은 일도 있음.</li> <li>• 하동경찰서에서 사무도 보고 경비도 서고 했으나 보도연맹 관련업무는 극비사항이라 자세한 사항은 잘 모름.</li> <li>• 보도연맹원들을 연행하던 사람들은 하동경찰서 경찰들이 했으며 보도연맹 처형 지시는 경남도경찰국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보련 처형에 관련하여 유족에게 통지한 적은 없으며 보도연맹 처형 후 처형했다는 문서기록은 10년이</li> </ul>	

제 7 권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14	정○○ (23)	하동경찰서	2009.6.4. 진실화해위원회	통화 보고	넘으면 문서를 폐기하므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것 이라고 함.	
15	박○○ (21)	하동경찰서 황천지서	2009.6.4. 진실화해위원회	통화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술인은 1950년 6월 당시 하동군 황천면에서 대 한청년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으며, 당시 대한청년단 단장이 이병호였음.</li> <li>• 황천면 대한청년단은 30명 정도 있었고 황천면 지 서에 속한 기관으로 지서에서 하는 일을 협조했음.</li> <li>• 보도연맹원들은 대부분 좌익 성격을 가진 자였음.</li> <li>• 보도연맹 연행이나 처형장소 등은 잘 모름.</li> </ul>	
16	이○○ (23)	하동경찰서 순경	2009.4.15. 하동군 옥종면 총흔탑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로당 하던 사람들이 여수, 순천에서 우익 사람들 죽이니까 군인들이 경찰서 사찰계 형사를 시켜서 보 도연맹원들을 구속한 것임.</li> <li>• 전쟁 발발 후 후퇴할 적에는 살려준다고 보도연맹 에 가입해 있던 사람들을 정보과에서 싹 다 잡아갔음.</li> <li>• 유치장이 비좁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구금해서 두드려 패거나 데려다가 즉결 처형해버렸음.</li> <li>• 적량면과 금남면에서 좌익이 강했음.</li> <li>• 전쟁 전 제3연대 정보과 김대위가 덮어놓고 사람을 싹 죽였음. 나중에 서울 가서 내무서장을 했음. 왜정 때 지원병 출신으로 지서든 짚차에서든 낮이고 밤이 고 없었음. 사람 죽이는 데는 분간 없이 민간인 죽인 것은 모두 김대위와 관련이 있음.</li> </ul>	
17	정○○ (21)	하동군 옥종면 대한청년단원	2009.4.19. 하동군 옥종면 총흔탑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술인은 하동군 옥종면 출신으로 대한청년단 특 공대원이었음.</li> <li>• 전쟁 전 반란군 토벌하러 다녔고 마을주민들 중반 란군 협조자는 지서에서 즉결처형을 많이 했음. 풀려 난 사람도 있지만 유치장에 주로 가두었다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많았음.</li> <li>• 전쟁 전 15연대가 와서 토벌에 참여했고 이후 3연 대가 주도하여 전쟁 이후 1,4후퇴시기까지 거주하였 음. 유치장엔 2~30명이 들어갈 수 있어서 반란군 협조자를 잡아서 유치장에 가두었다가 전부 화개의 조합창고에 구금시킨 후 섬진강 강변에서 즉결처형 을 많이 했음.</li> <li>• 전쟁 시엔 보도연맹이라고 하여 전부 데려다가 매 티재에서 죽였음.</li> <li>• '정계화' 라는 보도연맹원은 하동경찰서에서 돈 주 고 풀려나왔음.</li> </ul>	
18	소○○ (22)	진주형무소 형무관	2008.1.7. 자택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술인은 1948년 간수교육을 받은 후 1월 1일부터 진주형무소 보안과에 근무하였음.</li> <li>• 당시 진주형무소는 50~60명이 수용가능 하였는 데 주로 좌익사범이 수용되었음. 헌병과 CIC가 좌익 사범과 보도연맹을 체포 연행하였고 진주형무소에도 특공대가 10여 명 있었음.</li> <li>• 하동, 고성에서 끌려온 보도연맹원들과 좌익사범</li> </ul>	



##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18	소○○ (22)	진주형무소 형무관	2008.1.7. 자택	면담 보고	들을 간수로 하여금 포승을 죄게 한 후 한병이 데리고 나가 지리산으로 가서 모두 죽였음.	
19	조○○ (23세)	하동군 대한청년단원	2008.11.6. 화개면 탐리 마을회관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순사건이 발생하고 화개면에 국군 제15연대와 제3연대가 주둔함. 15연대는 잠깐 있었고 3연대는 1949년 봄부터 여름까지 몇 달간 주둔했음.</li> <li>• 대한청년단은 화개면 담배창고 근처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담배창고로 사람들이 많이 잡혀온 것을 알고 있음. 이 사람들은 화개면 부춘리 강변에서 죽이기도 했으며, 군인들이 주둔하던 담배창고 뒷산에서도 많이 죽였음. 군부대가 주둔하던 뒷산에 풀을 베러 갔다가 다 묻히지 않은 시신이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함.</li> <li>• 담배창고에 갇혀 있다가 사망한 사람들은 적량면, 청암면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었음.</li> </ul>	
20	김○○ (18세)	제5사단 제3연대 군인	2009.3.6.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연대 1대대 소속으로 여순사건이 났을 때는 전주 역전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가 반란군을 진압하러 구례로 출동함.</li> <li>• 1대대는 구례에 본부를 두고 우리 중대는 화개면 담배창고 옆에 주둔하거나 소대별로 산개하여 고지 등에서 주둔함.</li> <li>• 산간마을에서 반란군에게 식량을 준 사람들을 연행한 경우도 있었음.</li> <li>• 주둔하던 화개 담배창고 뒤쪽 고지에서 민간인을 총살할 때 우리 분대가 갔는데 처음 구덩이에는 2명, 두 번째 구덩이에서는 7~8명을 사살할 때 보초를 서고 있었음. 본인이 직접 쏘지는 않았음.</li> <li>• 민간인들을 사살했을 때가 1949년 봄이나 초여름이었던 것 같음.</li> </ul>	
21	○○○ (21세)	특무대	2010.4.7.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적에는 33년생이나 본래는 31년생임.</li> <li>• 한국전쟁 전부터 경찰의 지시를 받는 방위대에 가입하여 빨치산들과 전투를 했으며, 한국전쟁 발발 후 산청을 수복하고 산청특무대장 고종석 밑에서 문관(4명)으로 활동했음.</li> <li>• 1949년 빨치산 토벌작전을 할 때는 산청읍에 국군 제3연대 제1대대가 주둔했으며 대대장은 박종길이었음.</li> <li>• 산청보도연맹원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후퇴할 때 산청에서 진주 쪽으로 나오는 곳. 지금 왼쪽에 공장이 있는 곳에서 골짜기에 죽 눕혀놓고 사살했음. 피가 풍풍 나고 해서 가시덤불을 덮어 놓았음.</li> <li>•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지방 빨갱이 7명이 아버지를 잡아다가 창고에서 몽둥이로 뺨는데, 집으로 옮겨진 후 사망했음. 부친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 중 2명을 잡아서 직접 없앴음.</li> <li>• 산청군 산청읍 묵곡리에 사는 문모(某, 사건번호 다-3763)가 도피하였는데 친척집에 나타난다는 정</li> </ul>	사건번호 다-3762 다-3763

제 7 권

연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21	○○○ (21세)	특무대	2010.4.7.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	<p>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잠복했다가 사살했음. 그때 특무대원이었던 나와 15연대 경비대 출신 강진익, 금서면에 사는 이만호 등 4명이 함께 있었음. 그 집안 사람들이 빨갱이 핵심들이었는데 전매서장 하던 사람, 선생 하던 사람도 있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목곡리에서 사살한 문모(某)의 목을 자르지 않았으나 우리 동네인 산청읍 정곡리에 살던 강씨 목을 자른 적은 있음. 사찰계 형사들이 입산해 있던 강씨가 집에 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기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잡았음.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무급으로 8~9년 동안 특무대 문관으로 있었음.</li> <li>• 목곡리 살던 문홍택(사건번호 다-3762)과 그 딸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입산했는데 나중에 경찰에게 잡혔다는 말을 들었음. 당시 도피자들이 잡히면 그 지역에서 처리하곤 했음. 나도 문홍택을 잡으려고 찾아 다녔기 때문에 소식을 들었음.</li> </ul>	사건번호 다-3762 다-3763

다. 자료 조사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료조사

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참전군인 증언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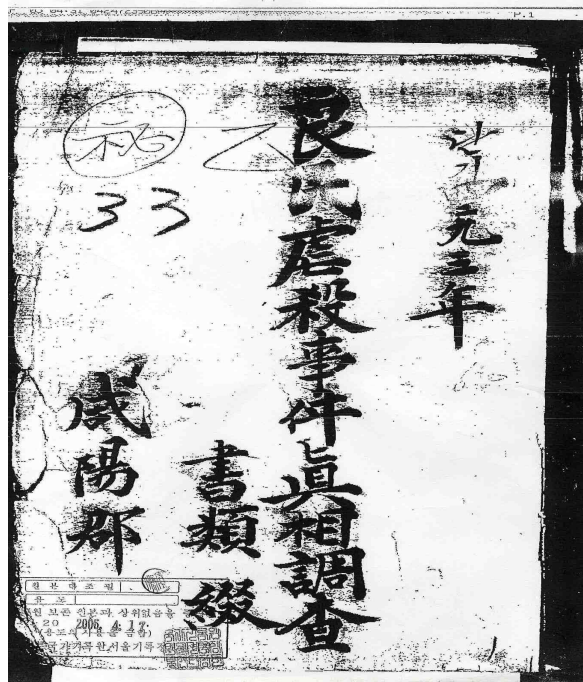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소장하고 있는 참전군인 증언록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참전군인 증언록

연번	이름	군번	분류번호	주요 진술
1	유치운	13901	HA03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년 남원지구 전투사령부(김백일장군)로 작전배치되었을 때 함양군 마천면에서 참모들을 견학시킴.</li> <li>• 이 곳에서 공비 100여 명을 제3연대 사병을 시켜 구덩이를 파게 한 후 공비를 한 명씩 총검으로 찔러 죽이게 했음.</li> <li>• 제3연대 병사가 돌아가면서 찔렸는데 한 번씩은 다 했고 대대장교가 차례로 돌아가면서 찔렸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어떤 사람은 두 번 했음.</li> <li>• 내 차례에는 여자가 걸렸는데 첫 번 찔렸을 때 죽지 않아서 호 속에 들어가서 또 찔렸음.</li> </ul>
2	김철순	11901	HA007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순사건 토벌 당시 구례군에서 백인엽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반란군 동조자 10여 명을 처형했는데 처형자 중에는 어린이 2명도 포함되어 있었음.</li> <li>• 1949년 10월 거창군 북상면 주민 30여 명을 수송대 인근에서 거창경찰서 사찰주임 유봉순이 경찰 15명을 동원해 처형했는데, 이 일이 문제가 되어 국방부에서 조사가 진행되자 공비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처리함.</li> <li>• 당시 제3연대 정보장교로 근무하고 있었음.</li> </ul>

## 나) 1960년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함양군)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은 함양군이 1960년 6월에 관내 10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 한국전쟁 전후 피해사항(희생자와 재산피해)을 파악하여 보고토록 하고, 이 자료를 취합한 보고서를 국회조사단에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경상남도 지사에게 보고한 자료이다. 이 보고서의 민간인 희생 피해시기는 1948년부터 1952년까지이며 보고서에 기록된 희생자 수는 409명이다. 사건 유형으로는 여순사건 이후 지리산 토벌작전 시기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한국전쟁 후 11사단 토벌작전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이 있으며, 특히 가해주체와 가해이유 및 희생자 명단 등이 실려 있다.



## 다)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 관내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 보고서」(거창군)

거창군의회에 접수된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 관내 민간인 희생자 청원의 건」에 대하여 2002년 11월 22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거창군의회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후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군경에 의한 사건, 미군폭격 사건 등이 실려 있으며 총 희생자 수는 71명이다. 희생자 조사는 청원

## 제 7 권

건에만 한정해서 조사하였으며, 청원건 외에도 일부 희생자 명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거창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유족 및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내용을 기록했을 뿐이며, 사건의 전체 과정을 알 수 있는 조사는 진행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8년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 보고서』(함양군)

### 2) 국군, 경찰 관련자료

- 육군본부 전사감실, 『공비토벌사』, 1954.
- 보병제7사단 사령부, 『칠성약사』, 1970.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77.
- 제5사단, 『부대약사』, 1980.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건군사』, 2002.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2003.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지역전사연구Ⅲ』, 2002.
-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한국경찰사(Ⅱ)』, 1973.
- 조선일보사, 『대한민국경찰의 혼』, 2003.

### 3) 신문자료 조사

- 동아일보
- 민주중보
- 자유민보
- 부산일보

### 4) 기타

- 마천애향회, 『마천향토지(馬川鄉土誌)』(1994. 8. 27.)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내용도 실려 있다.

## 라. 현장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들이 군경에게 연행되어 구금되거나 희생된 장소라고 주장하는 곳을 확인하였는데 그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전쟁 이전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관련 희생장소는 함양군의 경우 함양읍 이은리 남산(혹은 당그래산), 휴천면 포두재, 휴천면 문정국민학교, 마천면 마천중학교, 마천면 군자리 솔봉, 안의면 공산머리 가매실, 안의국민학교 뒤 대밭골 등이며, 하동군의 경우는 화개면 담배창고(현 화개지서 옆 화개제다), 화개면 부춘리 섬진강변 등이다.

② 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장소는 광양 매티재 등이다.

③ 한국전쟁 발발 후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관련 희생장소는 하동군 하동읍 송림 옆 백사장과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 소정골 등이다.

④ 그러나 신청인과 참고인이 희생장소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곳은 희생장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 II. 조사결과

### 1. 한국전쟁 이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sup>9)</sup>

#### 가. 사건배경

##### 1) 한국전쟁 이전의 지리산지구 빨치산 활동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하던 중 반란을 일으키고, 이에 지방좌익세력과 동조자들이 가담하여 여수·순천지역을 장악한 사건(이하 여순사건)이 발생했다. 여순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반란군은 진압군이 출동하자 지리산으로 도주하였다. 이들은 지리산 일대에 유격 근거지를 구축하여 빨치산 활동을 했다.

한편 북한에서는 1947년 9월 설치한 강동정치학원<sup>10)</sup>에서 남로당 출신자들을 훈련시켜

9) 여순사건 이후 지리산지구(산청군, 함양군 등)에서 민간인이 군경에게 희생되었다고 신청한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산청시천삼장민간인희생사건진실규명결정서』(2007.11.20.), 『함양민간인희생사건진실규명결정서』(2008.12.16.) 등에서 일부진실규명 결정하였다. 이 보고서는 앞의 보고서에서 조사 완료되지 않은 신청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사건배경, 참고인 등 전체적인 내용은 앞의 두 보고서를 인용, 참조하였다.

## 제 7 권

인민유격대로 양성한 뒤 1948년 11월 중순 1차로 남파한 후 1950년 3월까지 10차에 걸쳐 총병력 2,345명을 남한에 침투시켰다.<sup>11)</sup> 인민유격대는 남하 도중 군·경 토벌부대에 의해 대부분 사살 또는 생포되거나 북상 도주했으나, 잔여 병력은 남한에서 지방 빨치산과 합세했다. 이들은 3개 병단을 편성하여, 각 병단마다 무장대를 조직하고 세력 확장에 전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현상이 지휘하는 지리산지구의 제2병단은 650명의 병력으로 편성된 막강한 전력을 가진 부대로 알려지기도 했다.<sup>12)</sup> 즉, 1949년 여름 지리산지역은 14연대 반란군의 활동 근거지인 동시에 북한에서 파견한 인민유격대의 거점 활동 지역이었다.

또한 빨치산은 군·경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산간지역을 소위 ‘민주부락’이라 부르며 보급처로 활용했다.

### 2) 국군의 토벌작전

#### 가) 토벌부대의 상황

##### ○ 토벌 전투사령부의 설치(1948. 10.)

여수, 순천을 점령한 14연대 반란군이 남원, 광주지역으로 진격하자 국군은 여수, 순천, 남원, 광주, 함양 및 하동, 별교, 보성, 구례 등지에 부대를 배치하고 전투사령부를 광주에 설치했다. 사령관으로는 육군 준장 송호성(宋虎聲)이 취임하여 제2여단과 제5여단을 지휘하였다. 그리고 제5여단장 중령 김백일(金白一)을 급파하여 1948년 10월 21일에는 이리, 전주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전투태세를 완비하고 반란군 진압에 착수하였다.<sup>13)</sup> 국군이 전투태세를 완비하고 진압을 시작하자 14연대 반란군은 여수, 순천에서 퇴각하여 지리산, 백운산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 ○ 호남방면 전투사령부(1948. 10. 30.~11. 30.)<sup>14)</sup>

여순사건을 일으킨 반란군들은 토벌사령부가 1948년 10월 27일 여수를 최종적으로 탈환하면서 일단 진압되었다. 그러나 반란군 잔여병력이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였다.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 30일 여수에 있던 반란군 토벌사령부 예하

10) 1947년 평안남도 강동군 승호면 입석리에 설치한 정치학교. 1949년 남한의 유격활동이 활발해지자 군사반위주의 유격대원 양성소로 바뀌었다.

1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對非正規戰史)』1945-1960, 1988, 44쪽.

1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對非正規戰史)』1945-1960, 1988, 100쪽.

13) 제5사단, 『부대약사』, 52쪽.

1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對非正規戰史)』1945-1960, 1988, 76쪽.

의 작전부대를 주축으로 하여 호남방면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는 한편, 토벌 전투지구를 남과 북으로 분할하였다. 호남방면 전투사령부는 약 한 달간 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1948년 11월 30일에 해체되었다.

○ 호남·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1949. 3. 1.~1949. 5. 9.)<sup>15)</sup>

호남방면 전투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토벌대가 일부 철수하자, 지리산지역의 빨치산들은 이전의 활동범위였던 구례·하동 일대에서 벗어나 전남·전북의 동부지역과 경남 북서부인 산청·함양·거창군 그리고 진주 부근까지 행동반경을 확대했다. 1949년 해빙기를 맞아 육군본부는 지리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빨치산들을 색출·격멸하기 위하여 3월 1일부로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와 호남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된 정일권(丁一權) 준장은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를 남원에 설치하였으며, 배속된 5개 대대(3연대 3대대, 9연대 3대대, 5연대 3대대, 19연대 1개 대대, 독립 1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그리고 호남지구 전투사령부 역시 5개 대대를 배속받아 토벌작전을 개시하였다.

이 시기 토벌작전을 하던 제3연대는 반란군 지휘자 김지회와 홍순석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 정일권 준장은 반란지휘자인 김지회, 홍순석을 위시한 반란군 주력을 격멸한 뒤인 1949년 4월 18일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복귀하였다. 그의 후임으로 남원에 있던 제3연대장 함준호 대령이 임명되어 공비소탕작전을 계속하던 중 5월 9일 전투사령부가 해체되고 토벌부대는 원대복귀하였다.

○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1949. 9. 28.~1950. 3. 15.)<sup>16)</sup>

호남·경남 서부 일대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은 1949년 4월 초 김지회와 홍순석을 비롯한 지휘자들이 대부분 사살되어 지휘체계가 와해되었으므로 각 지역으로 분산 도주하여 은거하고 있었다. 이들 잔여 빨치산 200여 명은 5월 초에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가 철수하자, 분산된 병력을 집결시켜 재편성하였다.

정부는 북한 인민유격대의 지속적인 침투와 더불어 지방빨치산의 세력이 확장되자 군·경 수뇌회의를 개최하여 대대적인 토벌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를 남원에 설치하고 사령관에 김백일 대령(제5사단

1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對非正規戰史)』1945-1960, 1988, 80쪽.

1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對非正規戰史)』1945-1960, 1988, 99쪽.

## 제 7 권

장)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치안국은 지리산지구 전투경찰대를 남원에 설치하고 전투경찰 대장으로 최치환 총경을 임명함으로써, 육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했다.

### 나) 군·경의 토벌작전

빨치산을 토벌하던 군·경의 주요작전 목표는 지리산 산간부락의 소개(疎開)를 통해 빨치산의 거점과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1949년 7월 13일 김상봉 전라남도 경찰국장 발표 내용과 1949년 10월 24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 김백일의 인터뷰 내용에 나타나 있으며 해당 기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1949년 7월 13일 김상봉 전라남도경찰국장 발표 내용<sup>17)</sup>

##### 「경찰유격대편성 전남치안신조치」

1. 작전상의 필요에 따라 내일까지를 기한으로 방금 폭도들이 출몰하고 있는 각 산간부락을 소개 중에 있다.
2.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들의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대원의 신분을 조사한 다음 폭도와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수개처에서 38선에서 실시 중인 것과 같은 교통차단을 단행하겠다.

#### ○ 1949년 10월 24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 김백일의 인터뷰 내용<sup>18)</sup>

##### 「통비부락 소개의 실태」

“수색(搜索) 작전에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지리산지구 전투의 특수성은 적대목표가 막연한 점이라는 것이다. 그런 때문에 비민(匪民)을 분리<sup>19)</sup>시키기 위해서 二十호 내지는 三十호까지 되는 산간지대 소위 민주부락들을 소개하는 것을 앞으로 전개될 본격적 소탕작전에 있어서 양도차단(糧途遮斷)<sup>20)</sup> 전술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위의 기사를 볼 때, 1949년 지리산지구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던 군·경은 산간마을을 소개시키는 것을 주요한 작전으로 삼았으며,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같은 신문에는 지리산지구 소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17) 동아일보, 1949. 7. 15.

18) 동아일보, 1949. 10. 24.

19) 비민분리(匪民分離) 전술이란 일제가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유격투쟁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실행한 방법으로, 유격대를 물고기에 비유하여 물에 해당하는 주민들을 소개시켜 물을 빼서 물고기를 잡는 토벌작전이다. 일제는 이 전술을 실시하면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집과 재산을 불태웠다.

20) 식량이나 보급품 등을 차단하는 것.



“기자는 (전북)남원군과 (경남)함양군에서 소개실태를 조사하였다. 전기 양군에 있어서 이미 소개된 호수는 각기○○<sup>21)</sup>호에 소개 인구는 ○○ 명에 달한다. 지리산지구 공비의 준동 구역인 전라남북 양도와 경상남도 등 3개도 11개 군의 전 소개 호수는 ○○ 호에 소개 인구 총수는 ○○ 명에 달하는 실로 적지 않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난 7월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중략)… 경상남도 함양군에서는 이러한 소개민들이 산에서 찍어온 뭉글나무를 엮어올려 간단한 움집을 짓고 있었다. 명년 봄이 되면 다시 살던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말을 유일한 희망으로…”

위의 신문기사를 볼 때, 지리산지구에서는 산간마을을 소개시키는 것을 군·경의 중요한 작전수단으로 삼았으며, 이 작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간마을 소개는 빨치산 토벌작전이 끝나는 1950년 초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개작전은 당시에 문제가 되어 제5회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중지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sup>22)</sup>

## 나. 사건경위

여순사건을 일으킨 14연대 반란군들은 1948년 말부터 지리산에 인접해 있던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등의 관공서를 공격하는 등 본격적인 빨치산 활동을 했다. 토벌작전에 나선 군·경은 빨치산과 직접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빨치산의 보급활동 차단과 민간인들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경은 작전지역이던 지리산지구의 산간마을을 소개(疏開)하거나 통비분자 색출의 명분으로 마을주민들을 연행, 취조하여 빨치산과 협력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법적으로 사살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 1) 거창군 사건

#### 가) 거창읍 이영이 희생사건[사건번호 다-358(3)]

1949년 3월 거창읍 동동(현 대동리)에 거주하던 이영이는 집으로 찾아온 경찰들에게 새벽에 연행되어 거창경찰서에 구금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함께 경찰서에 구금된 30여명은 트럭에 실려 북상면사무소 뒤 갈계리 뒷산에서 사살되었다.

이영이는 일본에서 귀국한지 2일 만에 연행되었는데 연행이유는 동생 이사용의 행방을

21) 기사 원문에 ○○으로 표기되었다.

22) 동아일보, 1949.10.24.

찾기 위해 이영이를 연행하여 취조와 고문을 하다가 경찰들이 북상면으로 데려가 사살했다. 이영이가 사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희생자의 부친이 희생장소를 수소문하여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시신을 찾지 못했다.<sup>23)</sup>

나) 신원면 박윤희 희생사건(사건번호 다-868)

박윤희는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소야부락에서 대한청년단장 강원식 등과 한마을에 살았다. 박윤희가 사망하기 며칠 전 빨치산이 마을로 내려와 박윤희를 총으로 위협하면서 대한청년단장이던 강원식의 집을 알려달라고 하여 가리켜주자 빨치산들은 강원식을 찾아가 사살했다.

강원식의 장례를 치른 강원식의 부친은 대한청년단에 비협조적이었던 박윤희, 박기호, 이모(某)를 자기 아들을 죽게 한 빨갱이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이들은 거창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거창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세 사람은 별다른 혐의가 없어 경찰이 동행하여 마을 입구로 돌아왔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강원식의 부친이 이들을 왜 풀어주느냐고 항의하며, 강원식의 집을 빨치산에게 알려준 박윤희를 죽이라고 요구하자 경찰은 신원면 와룡리 소야부락과 비곡부락 사이 골짜기에서 박윤희를 대검으로 살해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이 1949년 10월 27일이다.

이 소식은 박윤희와 함께 잡혀갔다가 풀려나오던 박기호, 이모(某)가 마을에 와서 전했다. 소식을 들은 박윤희의 친척들이 현장으로 가서 시신을 수습하여 마을에 있는 종산으로 옮겼다.

신청인 박현영은 사건 당시 진주의 병원에서 급사로 일하다가 돌아와서 가족과 마을사람들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이 거창을 점령했을 때 인민군이 강원식의 부친을 잡아 소야부락 새장터에 끌고 와서 “강원식의 부친 때문에 너의 부친이 살해당했는데 강원식의 부친을 죽였으면 좋겠냐?”고 물어 “죽이지 말라”고 하자 공포를 몇 번 쏜 후 강원식의 부친을 풀어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sup>24)</sup>

다) 신원면 유봉태 희생사건(사건번호 다-4112)

1949년 가을 당시 청수리 수동마을 등 신원면 마을 인근에는 빨치산이 출몰하여 강압

23) 신청인 이영일 진술조서, 2008.9.11.; 참고인 임숙희 면담보고, 2009.11.25.

24) 신청인 박현영 진술조서, 2008.4.16.; 참고인 민경조 진술조서, 2009.10.21.

적으로 주민들에게 집을 나르게 하는 일을 시켰으며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신원면 청수리 수동마을에 살던 유봉태 역시 빨치산의 집을 옮겨 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신원지서로 끌려가 매를 많이 맞았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아 가족들이 업고 온 적도 있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유봉태는 경찰을 피해 1949년 10월경 밤 인근 산으로 도피했으나 도피 직후 신원면에서 남상면으로 넘어가는 갈집재에서 신원지서 소속 경찰에게 잡혀 살해당했다. 가족들은 사건 직후 유봉태의 피살 소식을 들었으나 무서워서 시신을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sup>25)</sup>

유봉태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았으나 참고인 엄창주와 김진수의 진술에 의해 1950년 10월경 신원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봉태는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함양군 사건(현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sup>26)</sup> 포함)

### 가) 함양읍 김원대 희생사건(사건번호 다-9975)

김원대는 해방 후 일본에서 귀국하였는데 친구 이모(某)의 영향으로 좌익활동에 가담하였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이후 마을에서 보초를 서게 되었는데 동생이 결혼하기 전날 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행방을 물은 후 보초를 서던 김원대를 함양경찰서에 구금하였다. 구금 당시 가족의 면회가 되지 않아 밥만 넣어 주었는데, 경찰서 소사로 일했던 사돈집 사람이 1948년 12월 21일에 남원시 산내면 소재 실상사 뒤편에서 사살되었다고 알려주어 가족들이 시신을 찾으러 갔으나 군인들이 총을 들이대며 내려가라고 위협해서 시신을 찾지 못했다.<sup>27)</sup>

25) 신청인 유권순 진술조서(2008. 4. 17), 참고인 엄창주 진술조서(2009. 10. 22., 2010. 9. 29), 참고인 김진수 진술조서(2010. 9. 29)

26) 현재의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는 사건 당시 행정지명은 함양군 안의면 춘전리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행정구역에 포함시켰다.

27) 신청인 김일성 진술조서, 2009.9.18.; 참고인 고흥수·이도식 면담보고, 2010.5.26.; 김원대의 제적등본에는 4282년(1949년) 12월 7일 사망으로 기재되었다.

나) 안의면 사건

① 춘전리 맹태호 등 16명 희생사건[사건번호 다-358(3)]

안의면 춘전리는 덕유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오지마을이다. 1948년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들이 덕유산과 지리산을 오가면서 활동하다가 마을에서 식량을 가져가거나 짐을 저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던 중 빨치산들이 마을로 내려와 짐을 나르게 하고 식량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마을로 와서 1차로 맹태호, 이현욱, 백창순, 박재규, 정진국, 심재섭, 김종환 등 주민 7명을 안의지서로 연행하여 2~3일 조사한 후 집에 돌려보냈다가 다시 안의 지서로 연행하여 구금한 다음날 저녁 지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살했다. 이때가 1949년 8월 31경이며, 소식을 들은 유족들은 희생장소에서 7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유족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시신을 수습할 당시 희생자들은 모두 손을 묶인 채 가슴에 총을 맞은 상태였다고 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20일이 지난 후 경찰은 다시 마을에 들어와 마을청년들을 연행했다.

김상출은 친구와 함께 안의지서로 오라는 마을 구장의 연락을 받고 지서로 가자마자 군인에게 인계되어 인근 야산으로 끌려가 사살되었으며, 이금행은 밭에서 일하다가 안의 지서로 연행되었고, 윤기순은 안의지서 경찰이 지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지 않자 마을로 와서 잡아갔다. 이때 마을청년들 여러 명이 함께 잡혀갔는데 잡혀간 마을청년들은 정덕용, 백용순, 이춘달(제적등본에는 이성록), 이춘복, 김종대(제적등본에는 김만대) 등이다. 경찰에게 연행된 마을청년들이 안의면 공산머리 가매실에서 사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들이 시신 일부는 수습하였으나 일부는 시신을 찾지 못했다. 이들이 희생된 며칠 후 김정곤은 조카 김종대(제적등본에는 김만대)가 억울하게 경찰에게 잡혀가서 죽었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여 경찰에게 잡혀갔다. 이후 경찰은 김정곤이 사망했다고 가족들에게 통고하여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안의면 공산머리 가매실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신청인,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안의면 춘전리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사살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희생된 사람은 22명이다.

신청인, 참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1960년 함양군에서 작성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의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조사서류철에는 “양민학살자 명단”과 함께 주소, 성명, 연령, 성별을 기록하고 있는데, “양민학살자 명단” 중 맹태호, 이현욱, 백창순, 백용순, 박재규, 정진국, 심재섭, 김상출, 이춘복, 윤기순, 김종환, 정덕용, 김종대(제적등본

에는 김만대) 등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한 진실규명대상자 명단과 일치한다.

특히 1960년 함양군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의 “양민학살자 명단”의 비고란에는 “4282년(1949년) 8월 27일 안의면 안의교에서 13연대 김시곤 대위에게 인치되어 집단 학살됨”<sup>28)</sup> 등으로 각 개인의 희생일자, 장소뿐만 아니라 가해부대, 가해장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2003년 거창군의회 보고서에도 실려 있다. 거창군의회에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하였는데 2003. 3. 발간한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 관내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1949년 8월 31일 안의초등학교 뒷산 대밭골에서 맹태호, 이현욱, 백창순, 백용순, 박재규, 정진국, 심재섭 등 7명이 희생되었고, 동년 9월 19일 안의면 공산머리 가매실에서 김태갑, 오이연, 김상출, 이춘달(제적등본에는 이성록), 박권출, 윤기순, 이금행, 김종환 등 8명이 희생되었으며, 동년 일자불상에 김정곤, 이녹이, 정덕용, 신호균, 김종대, 이춘복, 김종수, 김종일, 백남수 등 9명이 희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거창군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과 참고인이 진술하는 희생자의 명단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희생자의 희생일자와 장소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

## ② 상원리 전영구 희생사건[사건번호 다-2604(1)]

전영구는 1949년 8월경 집에서 키우던 소가 아파서 소 약을 지으러 산을 넘어가다가 산중에서 빨치산을 만났는데, 그 빨치산이 주소와 이름을 적으라고 말한 후 풀어준 적이 있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전영구는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전영구의 부친은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하여 함양군 수동면 본티고개 근처에서 전영구의 시신을 수습했다.<sup>29)</sup>

### 다) 백전면 사건

#### ① 한상훈 희생사건(사건번호 다-2877)

한상훈은 백전면 경백리 구장이었으며, 대한청년단 백전면 부단장이었다. 1949년 8월 6일

28) 사건 당시 함양군 안의면에 주둔한 것은 국군 제3연대이며, 김시곤 대위는 제3연대 정보장교로 확인되었다. 같은 보고서에서 가해부대를 제13연대와 제3연대로 혼재하여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 제13연대로 표기한 것은 제3연대의 오기로 판단된다.

29) 신청인 전영호 진술조서, 2008.4.29.; 참고인 임광택 진술조서, 2009.6.12.

## 제 7 권

경 대한청년단 교육을 받으러 함양으로 나갔다가 경찰에게 연행되어 행방불명되었다.<sup>30)</sup>

한상훈의 희생사실은 1960년 함양군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에 “1949년 9월 5일 함양읍 남산에서 경찰이 양민을 적색분자로 오인하여 총살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② 홍순철 희생사건(사건번호 다-3580)

홍순철은 백전면 백운리에 거주하였는데, 1949년 봄 서하지서 순경에게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사건 당시 홍순철과 함께 경찰에게 연행된 사람은 인근 옥환마을에 살던 이성달인데 함께 행방불명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마을은 여순사건이 발생하고 빨치산들이 자주 나타나서 밥을 해먹고, 식량을 빼앗아가거나 마을주민들에게 짐을 나르게 하기도 했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빨치산에게 잡혀가지 않으려고 지서가 있는 아랫마을로 피신을 가기도 했는데, 홍순철과 이성달은 빨치산들이 마을에 나타난 후 경찰에게 연행된 후 소식이 없었다.<sup>31)</sup>

홍순철이 경찰에게 연행되어 희생되었다는 사건은 1960년 함양군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에 “1949년 9월 5일 함양읍에서 경찰에 의하여 집단학살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라) 지곡면 사건

### ① 조성옥 희생사건(사건번호 다-1981)

조성옥은 1949년 7월 25일경 논에서 보리타작을 하던 중 사복형사 두 명이 찾아와 연행해 갔다. 조성옥이 연행될 당시 같은 마을에 살던 김순조도 함께 연된 후 소식이 없었다. 당시 거주하던 지곡면 개평리 개평마을은 좌익사상가들이 있었는데 같은 마을의 정모(某)가 마을 유지이면서 좌익사상을 가졌다. 정모(某) 또한 경찰에게 연행되어 사망하였다. 조성옥이 경찰에게 연행되자 함양읍에 거주하던 형 조점덕이 조성옥을 면회하였는데, 함양경찰서에 구금된 지 약 1달 후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신청인 조증석은 진술했다.<sup>32)</sup>

### ② 권구현, 권계현 희생사건[사건번호 다-3360(1)]

권구현은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대광마을에서 구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빨치

30) 신청인 한승희 면담보고, 2010.4.28.

31) 참고인 신관순 진술조서, 2009.6.17.

32) 신청인 조증석 진술조서, 2009.2.4.

산들이 산에서 내려와 마을주민들을 위협하면서 식량을 달라고 하여 준 일 때문에 동생 권계현과 함께 1949년 9월경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사건 당시 참고인 권형순은 목수일을 하는 남편 이종수와 함께 함양읍에 거주하였는데, 어느 날 남편 이종수가 사촌처남 권구현이 트럭에 실려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권구현은 트럭에 실려 인당다리 지나 남산(혹은 당그래산) 쪽으로 갔는데, 당시에 당그래산 쪽으로 가면 군경에게 사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며칠 후 참고인 권형순의 남편 이종수도 경찰에게 연행되어 희생되었다고 참고인 권형순은 진술했다.<sup>33)</sup>

#### 마) 휴천면 사건

##### ① 공기홍(사건번호 다-953), 광병석(사건번호 다-3086) 희생사건

1949년 봄 휴천지서 형사 김동원<sup>34)</sup> 등이 휴천면 금반리에 거주하던 공기홍(마을에서는 공학만으로 부름), 광병석, 표기수, 조길동을 연행하였는데, 공기홍은 경찰의 고문과 구타로 휴천지서에서 사망했다. 이후 경찰들은 다른 세 명을 군인들에게 넘겨주어 휴천지서 인근 포두재 골짜기로 데려가서 사살했는데 표기수와 조길동은 즉사했고 광병석은 바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이때 희생현장 근처에인 목현리에 살던 주민 한 사람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 광병석의 부친과 둘째형 등이 사살현장에서 부상당한 광병석을 메고 나왔다.

참고인 박종갑은 사건 당시 서당에서 마을로 오던 길이었는데 포두재 골짜기에서 총에 맞은 광병석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하지만 광병석은 마을에 채 오기도 전에 사망하여 그 인근에 매장을 했다고 진술했다.<sup>35)</sup>

이 사건은 1960년 함양군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에 공학만, 표기수, 광병석 등이 희생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4282년(1949년) 4월에 경찰서 휴천지서에 연행 11사단 9연대에 의하여 학살”되었다는 내용으로 신청인, 참고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sup>36)</sup>

##### ② 김채규 희생사건(사건번호 다-5116)

1948년 12월 들에서 일하고 있던 김채규를 연행하여 문정국민학교에서 사살했다. 당시

33) 참고인 권형순 진술조서, 2009.6.19.

34) 신청인이 희생자를 연행한 사람을 특정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다.

35) 참고인 박종갑 진술조서, 2009.5.20.

36)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부대를 한국전쟁 이후 주둔한 국군 제11사단으로 지목한 것은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정국민학교에 재학중이던 유광수의 진술에 의하면, “학교에 등교를 하여 보니 운동장에 피가 낭자하게 있었으며, 김채규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당시 시신을 수습하던 마을주민들은 김채규가 국군에게 희생되었다”고 했으며,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참고인 김옥규는 “국군은 마천, 남원 방향에서 아침부터 그날 오후까지 계속해서 들어왔으며, 같은 마을에 사는 김채규가 국군에게 문정국민학교에서 사망하여 마을주민들이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은 마을에서 모두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sup>37)</sup>

### ③ 강위철 희생사건(사건번호 다-8741)

강위철<sup>38)</sup>(마을에서는 강한수로 불림)은 1948년 10월 31일 집으로 찾아온 군인들이 소재를 물어 가족들이 밭에서 일한다고 하자 강위철이 일하던 곳으로 찾아가 연행하였다. 당시 가족들이 군인들을 막아섰지만 강위철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군인들을 따라 간 후 소식이 끊겼다. 이후 가족들이 사방으로 수소문을 하였으나 잡혀간 강위철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사건 당시 문정리 문하마을에는 강위철 어머니의 친척인 임모(某)가 빨치산 간부 출신이었고, 마을청년들 중 똑똑한 사람들은 좌익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강위철이 국군에게 연행당하기 한 달 전 쯤에 마을주민 김모(某)가 문정국민학교 앞에서 군인들에게 총살당한 적이 있다고 신청인은 진술했다.<sup>39)</sup>

강위철의 희생사실은 1960년 함양군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에서도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1949년 7월 22일 함양읍 이은리 남산에서 군대에 의하여 학살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 바) 마천면 희생사건

### ① 석성수 희생사건(사건번호 다-1978)

1949년 봄 마천면 추성리 민보단장이던 석성수와 감찰부장 권병호 등 4명은 마을로 들어온 군인들에게 연행되어 남원시 산내면 산내지서로 연행되었다. 연행된 사람들은 빨치산들에게 밥을 해주었는지, 짐을 져다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취조했다. 이들에 걸친 취조와 구타를 한 후 민보단장 석성수와 감찰부장 권병호를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빨치산을 토벌하던 국군과 다시 마주쳤다. 그때 국군은 마천면 추성리 민

37) 참고인 유광수 진술조서, 2010.2.9.; 참고인 김옥규 진술조서, 2010.2.9.

38) 강위철은 1960년 함양군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의 희생자 명단에 강한수로 되어 있다.

39) 신청인 강동민 진술조서, 2009.9.22.



보단장이 누구냐고 감찰부장 권병호에게 물어 뒤에 오는 사람이 민보단장이라고 알려주었는데, 그 이후 석성수는 군인들에게 연행된 후 소식이 없다.<sup>40)</sup>

### ② 광봉준 희생사건(사건번호 다-6809)

1949년 5월경 마천면서기를 하던 광봉준과 같은 마을에 살던 윤종태를 국군이 연행했다. 같은 마을에 살던 참고인 이동식은 군인들이 가흥리 당흥부락 냇가에서 민간인 네 사람을 물에 담갔다가 꺼냈다가 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광봉준과 윤종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가흥리 토롱골에서 사살했으며,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했다.<sup>41)</sup>

광봉준과 윤종태의 희생사실은 1960년 함양군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에서도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마천면 당흥부락 근방 산변에서 3연대 소속 정보관이 인솔 학살함. 4282년(1949년) 6월 2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마천향토지』에도 ‘광봉준과 윤종태가 3연대 군인에게’ 희생당한 사실이 실려 있다.<sup>42)</sup>

### ③ 신호영, 신재현 희생사건(사건번호 다-10169)

신호영, 신재현, 신동천 3형제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1949년 설 무렵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남은 찌꺼기를 태운다고 불을 놓았는데 그것을 빨치산들하고 연락하려고 불을 놓았다고 하면서 이들 3형제와 마을주민들을 마천지서로 연행하였다. 마을주민들은 불을 놓은 것과 관련이 없다고 풀려났으나 3형제는 지서에서 15일 정도 구금되어 취조와 고문을 받았다. 이후 신동천은 어리다고 풀려나고 신호영과 신재현은 마천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에게 끌려가 금대산에서 사살되었다.

신호영과 신재현이 사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신동천과 가족들은 시신을 찾으러 금대산 둥곳재에 갔다가 1949년 2월 26일 시신을 찾아 수습했다.<sup>43)</sup>

신호영, 신재현 형제의 희생사실은 1960년 함양군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에서도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1949년 1월 20일 마천면 금대산에서 3연대에 의하여 학살당하였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40) 참고인 권병호 진술조서, 2008.3.19.

41) 참고인 이동식 진술조서, 2008.2.18.

42) 『마천향토지』에는 광봉준과 윤종태의 성(姓)이 서로 바뀌어 기록되어 있다.

43) 신청인 신동천 진술조서, 2009.5.20.

### 3) 하동군 사건

#### 가) 금남면 정홍덕 등 희생사건(사건번호 다-3232, 다-3233, 다-3676)

1949년 봄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던 국군은 금남면 대치리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김양국민학교에 모이게 했다. 참고인 정자호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국군은 마을 입구에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으며, 김양국민학교 운동장에 마을사람들을 세워놓고 호명을 하고, 호명한 사람들을 트럭에 싣고 갔다고 진술했다.

당시 국군에게 연행된 사람은 정홍덕, 정태석, 박기호를 포함하여 10여 명인데, 잡혀간 사람 중 정태석 등 몇몇은 진주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 마을사람들과 함께 잡혀갔다가 살아 돌아온 박기호는 국군이 마을에서 연행한 사람들을 주둔지인 화개면의 담배창고에 구금한 후 빨치산과의 협력여부에 대해서 취조했으며, 약 일주일 지난 후 박기호 자신만 풀어주었다고 마을에 와서 전했다. 풀려난 박기호를 제외하고는 담배창고에 구금된 마을주민들은 이후 행방불명되었으며,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정민석은 서울에 살고 있는 누나 집으로 피신을 하였다. 서울에서 피신해 있던 정민석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우익활동을 하던 친척 정정석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주소를 보고 찾아온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하동경찰서에 구금되었다. 이후 정민석은 행방불명되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연행된 정민석은 하동경찰서에서 취조를 당한 후 노량 앞바다에서 수장되었다고 했다.<sup>44)</sup>

#### 나) 적량면 강윤석 등 희생사건(사건번호 다-6158, 다-6161, 다-6174, 다-6175, 다-6176, 다-6177, 다-6179, 다-6180, 다-6181, 다-6182, 다-6185)

적량면 동리에서는 1949년에 마을주민들이 경찰에게 연행되어 하동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빨치산 토벌작전 중이던 군인들이 주둔하는 화개면 담배창고로 옮겨져 취조를 당한 후 희생되었다.

참고인 정양기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까만색 제복을 입은 경찰과 누런색 옷을 입은 청년들이 칼빈총, 99식총으로 무장하고 마을에 수시로 들어와서 마을을 순찰하거나 주민들을 잡아갔다. 마을사람 중 심은섭, 정환삼, 강윤석, 조성조는 경찰에게 연행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 잡혀가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마을에 살다가 잡혀간 사람은

44) 신청인 정양욱 진술조서, 2008.4.24.; 참고인 정자호 진술조서, 2010.1.28.; 참고인 정희대 진술서, 2010.1.28.

이외에도 심재섭, 정사현, 정수현, 이삼용, 정순경, 심정섭, 정을묘, 이인호 등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참고인 정권수는 경찰에게 연행되었다가 살아나온 사람 중 최태용이 있었는데, 최태용은 생전에 마을사람들과 함께 경찰에게 연행되어 화개면 담배창고에 구금되었다가 혼자만 풀려났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sup>45)</sup>

#### 다) 고전면 심두섭 희생사건(사건번호 다-6186)

고전면 신월리에 거주하던 심두섭은 1949년 여름 고전지서 순경에게 연행된 후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심두섭의 처 김복금의 진술에 의하면, 남편이 보리타작을 하는데 총을 멘 경찰 2명이 찾아와 함께 갈 것을 요구하여, 옷을 갈아입고 경찰을 따라갔다. 당시 같은 마을에서 경찰에게 연행된 사람은 7~8명 정도 되는데 염옥관이 잡혀가고 나서 남편 심두섭과 허응준, 김범석, 강호성 등이 잡혀가고 그다음에 염옥관의 동생인 염상관, 염희석이 연행되었다. 잡혀간 사람 중 김범석과 강호성은 하동경찰서에서 구타와 취조를 당한 후 열흘 만에 돌아왔으나 나머지는 이후 소식이 없다고 진술했다.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참고인 설남열도 마을사람 여러 명이 1949년 경찰에게 연행되어 돌아오지 못했다고 진술했다.<sup>46)</sup>

#### 라) 양보면 김도중 희생사건(사건번호 다-9289)

양보면 우북리에 거주하던 김도중은 양보지서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금남면에서 좌익활동을 하던 사람이 경찰에게 잡혀 김도중의 집에서 묵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있고 열흘 정도 지나서 경찰은 같은 마을에 살던 김두태, 이영춘과 함께 김도중을 연행하였다. 연행된 김도중, 김두태, 이영춘은 하동경찰서에서 구금되었다가 전북 남원소재 군부대로 넘겨졌다. 남원 군부대에서 이영춘이 풀려나고 며칠 있다가 김두태가 풀려났는데, 이영춘과 김두태가 마을로 돌아와 전한 소식에 의하면 함께 구금된 김도중이 군인에게 불려 나간 후 소식이 없다고 했다.<sup>47)</sup>

#### 마) 북천면 최수열 희생사건[다-7306(1)]

최수열은 북천면 서황리에 거주하다가 북천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45) 참고인 정도기 진술조서, 2010.2.1.; 참고인 정양기 진술조서, 2010.2.1.; 참고인 정권수 진술조서, 2010.2.1.

46) 신청인 김복금 진술조서, 2010.1.31.; 참고인 설남열 진술조서, 2010.2.1.

47) 신청인 김원석 진술조서, 2008.8.19.; 참고인 정용기 면담보고, 2010.4.16.

제 7 권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참고인 김주에 따르면, 최수열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북천지사로 잡혀간 후 하동경찰서로 넘겨진 다음 행방불명되었으며, 이듬해 최수열의 동생 최홍열과 마을주민 김호영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경찰에게 잡혀가서 희생되었다고 진술했다.<sup>48)</sup>

**다. 사건 조사결과**

**1) 희생자의 신원과 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신청인을 중심으로 희생자의 신원과 희생자의 규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결과 희생자들이 좌익활동으로 인해 경찰서에 구금되었던 적이 있거나 수형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희생자 대부분은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민이었다.

이 사건의 희생자를 확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희생자의 연행과정, 희생과정 등을 목격한 자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했다. 둘째,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사건 내용을 전하여 들은 자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했다. 셋째,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넷째, 국가기관 등에서 기록한 사건관련 자료를 통해 희생자의 희생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상의 내용에 의거하여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자 신원 및 확인 근거는 <표 6>과 같다.

**<표 6> 희생자 신원 및 확인 근거**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확인
		이름 (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사망연월일 <sup>49)</sup>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자료1 50)	자료2 51)	
거창												
1	358(3)	맹태호 (孟泰鎬)	남	26	1949.8.31.	안의초등학교 뒤 대밭골		박무임	○	○	○	확인
2	358(3)	이현욱 (李賢旭)	남	36	1949.8.31.	안의초등학교 뒤 대밭골	맹판호		○	○	○	확인
3	358(3)	백창순 (白昌淳)	남	27	1949.8.31.	안의초등학교 뒤 대밭골	맹판호		○	○	○	확인
4	358(3)	백용순 (白容淳)	남	19	1949.9.19.	안의면 공산머리 가매실		맹판호		○	○	확인
5	358(3)	박재규 (朴在圭)	남	23	1949.8.31.	안의초등학교 뒤 대밭골	맹판호		○	○	○	확인

48) 참고인 김주 진술서, 2010.2.5.

##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확인
		이름 (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사망연월일 <sup>49)</sup>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자료1 50)	자료2 51)	
6	358(3)	정진국 (鄭鎭國)	남	29	1949.8.31	안의초등학교 뒤 대밭골	맹판호		○	○	○	확인
7	358(3)	심재섭 (沈在燮)	남	24	1949.8.31.	안의초등학교 뒤 대밭골	맹판호		○	○	○	확인
8	358(3)	김상출 (金相出)	남	23	1949.9.19.	안의면 공산머리 가매실		맹판호	○	○	○	확인
9	358(3)	이성록 (李成祿)	남	27	1949.9.19.	안의면 공산머리 가매실		맹판호			○	확인
10	358(3)	이춘복 (李春福)	남	19	1949.9.19.	안의면 공산머리 가매실		맹판호		○	○	확인
11	358(3)	윤기순 (尹基淳)	남	28	1949.9.19.	안의면 공산머리 가매실		맹판호		○	○	확인
12	358(3)	이금행 (李金行)	남	23	1949.9.19.	안의면 공산머리 가매실		맹판호	○		○	확인
13	358(3)	김종환 (金鍾煥)	남	23	1949.8.31.	안의초등학교 뒤 대밭골	맹판호		○	○	○	확인
14	358(3)	김정곤 (金正坤)	남	43	1949.9.	안의면 공산머리 가매실		맹판호	○		○	확인
15	358(3)	정덕용 (鄭德用)	남	23	1949.9.19.	안의면 공산머리 가매실		맹판호		○	○	확인
16	358(3)	김만대 <sup>52)</sup> (金萬大)	남	20	1949.9.19.	안의면 공산머리 가매실		맹판호		○	○	확인
17	358(3)	이영이 (李滌伊)	남	33	1949.3.30.	복상면 갈계리 뒷산		임숙희				추정
18	868	박윤호 (朴允浩)	남	40	1949.10.29.	신원면 와룡리 소야마 울과 비곡마을 사이		민경조	○			확인
19	4112	유봉태 (劉鳳泰)	남	41	1949.10.	신원면 갈집재		엄창주 김진수				확인

## 함양

1	953	공기홍 <sup>53)</sup> (孔奇洪)	남	25	1949.4.	휴천지서		박종갑	○	○		확인
2	1978	석성수 (石聖守)	남	31	1949. 봄	마천면 추성리	권병호	문창권				확인
3	1981	조성옥 (趙星玉)	남	28	1949.7.25.	함양경찰서						불능
4	2877	한상훈 (韓相燾)	남	39	1949.9.5.	함양읍 남산		한병일 정순조		○		확인
5	3086	곽병석 (郭丙錫)	남	23	1949.4.	휴천지서 근처 포두재	박종갑		○	○		확인
6	3580	홍순철 (洪淳哲)	남	26	1949.9.5.	함양읍 남산		신판순		○		확인
7	5116	김채규 (金采圭)	남	22	1948.12.	휴천면 문정국민학교	유광수	김옥규	○			확인

제 7 권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확인
		이름 (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사망연월일 <sup>49)</sup>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자료1 50)	자료2 51)	
8	6809	곽봉준 (郭鳳準)	남	28	1949.5.	마천면 가흥리 토룡골	이동식			○		확인
9	8741	강위철 (姜渭喆)	남	21	1948.10.31.	함양읍 남산		장계선		○		확인
10	9975	김원대 (金元大)	남	27	1948.12.7.	전북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 뒷산		고광수 이도식				확인
11	10169	신재현 (申在鉉)	남	22	1949.1.20.	마천면 금대산			○	○		확인
		신호영 (申浩永)	남	25	1949.1.20.	마천면 금대산			○	○		확인
12	2604(1)	전영구 (全永九)	남	27	1949.8.	수동면 본티고개		임광택	○			확인
13	3360(1)	권구현 (權求鉉)	남	27	1949.9.	함양읍 남산		권형순				추정
		권계현 (權季鉉)	남	22	1949.9.	함양읍 남산		권형순				추정

하동

1	3232	정흥덕 (鄭興德)	남	31	1949.4.18.	전주형무소	정자호	정희대				확인
2	3233	정태석 (鄭泰錫)	남	46	1949.4.18.	전주형무소	정자호	정희대				확인
3	3676	정민석 (鄭玟錫)	남	30	1949.7.	금남면 노량앞바다		정자호 정희대				확인
4	6158	강윤석 (姜允錫)	남	31	1949.5.17.	화개면 담배창고	정양기	정권수 정도기				확인
5	6161	정사현 (鄭士賢)	남	32	1949.6.	전주형무소		정양기 정권수 정도기				확인
		정수현 (鄭守賢)	남	21	1949.6.	전주형무소		정양기 정권수 정도기				확인
6	6174	심은섭 (沈銀燮)	남	28	1949. 여름.	화개면 담배창고 인근	정양기	정권수 정도기				확인
7	6175	이인호 (李仁鎬)	남	29	1949.6.1.	화개면 담배창고 인근		정양기 정권수 정도기				확인
8	6176	조성조 (曹聖助)	남	44	1949.5.17.	화개면 담배창고 인근	정양기	정권수 정도기				확인
9	6177	정을묘 (鄭乙卯)	남	34	1949.5.17.	화개면 담배창고 인근		정양기 정권수 정도기				확인
10	6179	정환삼 (鄭煥三)	남	27	1949.5.19.	화개면 담배창고 인근	정양기	정권수 정도기				확인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확인	
		이름 (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사망연월일 <sup>49)</sup>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자료1 50)		자료2 51)
11	6180	심재섭 (沈在燮)	남	35	1949.5.17.	화개면 담배창고 인근	정양기	정권수 정도기				확인
12	6181	심정섭 (沈鉦燮)	남	31	1949. 봄.	화개면 담배창고 인근		정양기 정권수 정도기				확인
13	6182	정순경 (鄭淳鏡)	남	27	1949.6.20.	화개면 담배창고 인근		정양기 정권수 정도기				확인
14	6185	이삼용 (李三龍)	남	24	1949.봄.	화개면 담배창고 인근		정양기 정권수 정도기				확인
15	6186	심두섭 (沈斗燮)	남	21	1949.7.17.	하동경찰서		설남열				추정
16	9289	김도중 (金道中)	남	46	1949.7.21.	전북 남원시 군부대		정용기				추정
17	7306(1)	최수열 (崔穗烈)	남	33	1949.7.	하동경찰서		김주 황두복				확인

## 2) 가해책임

1948년 여순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지리산지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가해자는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던 군경으로 판단된다.

지리산지구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은 산간마을에 출몰하여 식량 등을 빼앗아 가자 군경은 산간마을을 소개하는 작전을 전개했다. 이 사실은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 김백일의 동아일보(1949.10.24.) 인터뷰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백일은 '비민(匪民)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산간지대 부락을 소개하고, 양도차단(糧途遮斷)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같은 신문에서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의 경우 소개된 홑수가 ○○호에 소개 인구는 ○○에 달한다.'고 실린 것으로 보아 이미 소개작전을 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군경은 산간마을을 소개하는 한편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하거나 협조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연행, 구금하여 취조했다. 이때 군경에게 연행, 구금당한 주민들은 취조 후 그 결과에 따라 풀려나거나 학살당했다.

49) 사망일자가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연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였다.

50) 함양군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 1960.

51) 거창군의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 관내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 보고서』, 2003. 3.

52) 제적등본에는 김만대(金萬大)로 기재되어 있다.

53) 집에서는 공학만이라고 불렀다.

## 제 7 권

다음은 각 군(郡)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국군, 경찰 및 대한청년단 등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사건관련 내용이 기록된 문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 ① 함양군의 경우 사건 당시 함양경찰서 사찰계 형사 오○○은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산간마을 주민들은 빨치산이 나타나서 밥을 해내라고 하면 자기들이 안 죽으려고 밥을 해주곤 했는데, 그다음 경찰이 가서는 …경찰들은 통비분자 혐의로 잡혀온 사람들을 풀어 주려고 했으나 군인들은 경찰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경찰이 민간인을 희생 안 시키려고 옹호하면 군인들이 같은 놈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말을 못 했다. 억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말 못 했다.”<sup>54)</sup>

그리고 함양경찰서 사찰계 형사로 군인들과 함께 토벌작전에 나섰던 하○○은 “1949년 함양군 마천면 군자리에서 희생당한 민간인들은 경남 각 경찰서에 구금되었던 좌익들을 군부대가 주둔하던 함양으로 데려와 군인들에게 인계하여 처리한 것이며, 군인들은 마천면 군자리로 민간인들을 데려가 총검으로 찌르고 나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총으로 쏘았는데 그때 본인도 권총으로 함께 사살했다.”고 진술하여 군경이 민간인들을 집단학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마천면 군자리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참전군인 유치운(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참전군인 증언록』)의 증언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유치운은 “1949년 함양군 마천면에서 공비 100여 명을 제3연대 군인들이 총검으로 살해했으며, 본인도 현장에서 여자를 총검으로 살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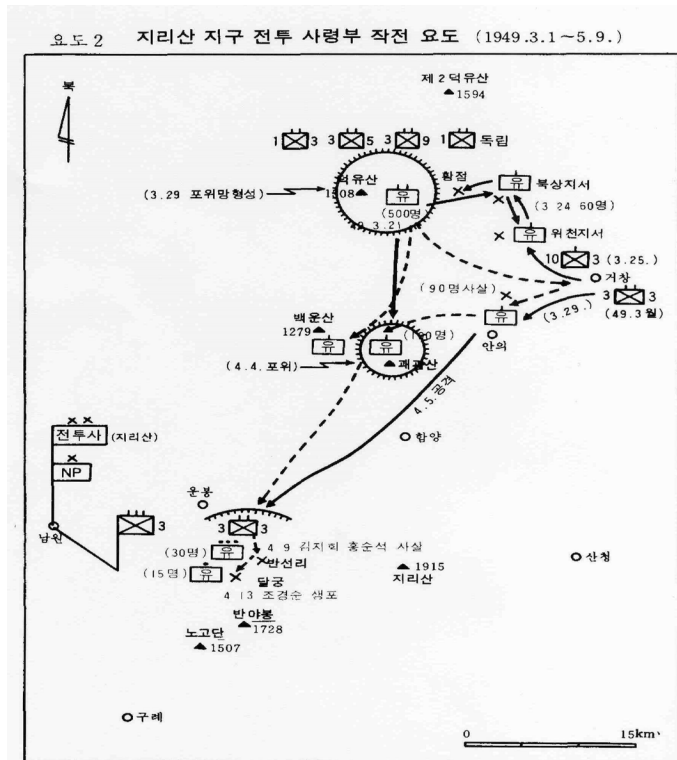
그리고 가해부대가 제3연대라는 것은 1960년 함양군이 경남도지사에게 보고한 『양민 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문서에는 ‘1949년 안의면, 수동면, 서상면 등에서 국군 제3연대가 마을주민들이 산속의 공비와 접선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일시 구금하였다가 안의면 공동묘지, 함양읍 이은리 남산(당그래산)에서 집단학살하여 같은 장소에 매장 하였다.’라고 조사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의 [자료 1]은 국방부에서 발간한 『대비정규전사』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제3연대가 1949년도에 함양군 일대에서 작전을 전개했음을 보여주는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작전요도이다. 작전요도에 나와 있는 기간 이후에도 제3연대는 지리산지구에서 1950년 초까지 작전을 전개했다.

54) 참고인 오○○ 면담보고서, 2008.9.5.



[자료 1]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작전요도<sup>55)</sup>



당시 제3연대 소속 장교 차○○의 진술에 의하면 “(민간인 즉결처형은 군부대)정보과에서 오라고 그래, 그러면 총을 들고 가. 나는 소대에 있을 때 1개 분대든지 데리고 가면 정보과에서 추리거든 사형할 사람들. …쏘라고 지시하는 것은 정보과이고 우리는 쏘고 그랬다. …여러 번 갔다. 많이 갔다. 말도 마라. 몇 백 명이 죽었다.”면서 본인이 수차례에 걸쳐 민간인을 사살했음을 시인했다.

②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경우 제3연대 소속 정보장교 김철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참전군인 증언록』)의 증언을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김철순은 ‘제3연대 정보장교이던 1949년 거창경찰서 사찰주임 유봉순이 북상면 주민 30여 명을 경찰 15명을 동원하여 수송대 인근에서 처형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국방부에서 조사가 진행되자 공비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처리’했다고 증언했으며, 사건 당시 국군의 작전지역

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91쪽.

이 거창지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민간인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과 경찰로 판단된다.

③하동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경우 당시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 참고인 정○○과 조○○에 의하면, '여순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국군 제15연대와 제3연대가 하동군 화개면에 주둔하였는데 군인들이 화개면 담배창고로 민간인들을 잡아다 구금한 후 담배창고 뒷산과 화개면 부춘리 섬진강변에서 집단사살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하동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했던 ○○○은 '악양면, 적량면, 화개면 등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빨갱이 프락치를 수색하러 다녔으며, 수시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연행하여 하동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면 사찰계에서 조사한 후 국군에게 넘겨주었다. 당시 국군은 하동을 소재 송림과 화개면에 주둔하였는데 국군 제3연대, 제9연대, 제15연대 등이 있었다. 화개면에 주둔하던 국군은 담배창고 뒷산에서 민간인들을 즉결처형했다'고 진술했다.

하동경찰서 소속 ○○○과 대한청년단원 정○○, 조○○의 진술은 사건 당시 하동군 일대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던 국군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사건 당시 제3연대 소속으로 빨치산 토벌작전에 참전했던 김○○은 '여순반란 사건후 하동군 화개면 등에서 주둔하고 있었으며, 산간 마을에서 민간인을 연행한 적도 있고, 연행한 민간인들을 화개면 담배창고 뒤 고지에서 우리 분대가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인 10여 명을 사살할 때 보초를 섰다.'고 진술했다.

이상의 참전군인, 경찰, 대한청년단원 등 빨치산 토벌작전때 참전하였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1960년 함양군에서 조사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 2003년 거창군의회 청원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 관내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 보고서」(2003. 3.)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거창, 함양, 하동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가해자는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던 국군과 경찰로 판단된다.

### 3) 가해의 위법성 여부

이 사건 당시 빨치산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기본법으로는 「(구)형법」,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등이 있었다. 「국방경비법」 위반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그리고 「(구)형법」, 「국가보안법」 위반인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벌이 집행되도록 그 실체적·절차적 규정이 있었다.

사건 당시 거창군, 함양군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희생자들은 대부분 빨치산

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받거나 협박에 못 이겨 그들에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군과 경찰이 민간인을 빨치산에 협조하였다는 혐의로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여 살해한 행위는 실제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나 명백히 위법한 행위이다.

국군과 경찰이 빨치산 토벌작전 중이라 하더라도 사법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을 총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들이 전쟁 전 국방경비법(제32조)의 이적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었다면 마땅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벌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사건발생 당시 적법한 심사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살되었다. 단지 빨치산을 도왔다는 혐의로 국가기관인 국군과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sup>56)</sup>는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다.

## 2. 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sup>57)</sup>

### 가. 사건배경

#### 1)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국민보도연맹은 ‘전향자를 계몽·지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받아들인다’<sup>58)</sup>는 목적을 표방하고 1949년 4월 20일에 결성된 단체이다. 법률이나 훈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지만 중앙본부의 간부진<sup>59)</sup>을 살펴보면 김효석 당시 내무부장관이 총재를, 백한성 법무부차관, 장경근 내무부차관, 옥선진 대검찰청 차장이 부총재를 맡는 등 정부의 주도 하에 만들어진 관변단체였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9월 20일부터 지방지부 조직에 착수하였는데 지방지부는 도내 각 경찰서 단위로 하부조직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민보도연맹 경상남도연맹은 1949년 11월 20일 부산 남일초등학교 강당에서 ‘결성선포대회’를 개최<sup>60)</sup>하였고 이후 경상남도 산하 각 시·군 연맹과 읍·면 지부가 결성되었다.

56) 국내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중 부역혐의나 적과 내통한 혐의만 있는 마을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경찰 지휘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불법성을 확인해준 판례가 있다(대법원 1952. 형상 제115호)

57) 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었다고 신청한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고성군·남해군·하동군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9.11.17.)에서 진실규명 결정하였다. 그러나 군경토벌 과정 중 발생한 사건으로 분류된 신청사건을 조사하던 중 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확인된 사건이 있어 조사하였다. 사건배경, 참고인 등 전체적인 내용은 앞의 보고서를 인용, 참조하였다.

58) 동아일보, 1949년 4월 23일자.

59) 동아일보, 1949년 6월 6일자.

60) 자유민보, 1949년 11월 20일자.

이보다 앞서 중앙 검·경 당국은 1949년 10월 25일부터 1949년 11월 30일까지 남로당 원 자수주간을 설정하고 대대적인 자수·전향 작업을 진행하였다. 남로당 등 좌익단체 가입자들은 자수와 동시에 탈당성명서<sup>61)</sup>를 신문 광고란에 발표한 후 국민보도연맹 조직에 가입하였다. 1949년 12월 2일 경상남도 경찰국 사찰과에서 발표한 군별 자수자 현황에 의하면 경남의 경우 5,000여 명에 달했으며, 하동군의 경우 134명이었다.<sup>62)</sup>

## 2) 하동군 국민보도연맹 결성

하동의 경우 1949년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수전향자 134명<sup>63)</sup>을 중심으로 보도연맹이 결성되었는데 결성식은 1949년 12월 4일 하동군청 회의실에서 있었다.<sup>64)</sup> 간사장은 전우영이 맡았다.<sup>65)</sup> 당시 참석한 정계화는 “1개면에서 10명 정도씩 책임자 급이 참석해서 아마도 12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고<sup>66)</sup> 진술하였다.

하동경찰서 소속 기동대원이었던 유영수는 “동네에서 생활이 곤란하고 무학인 자들이 가입했다.”<sup>67)</sup>고 진술하였다. 당시 주민들은 가입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가입했고<sup>68)</sup> 다른 일부는 마을 유지들의 선동에 단체의 성격도 모른 채 가입원서에 도장을 찍었다<sup>69)</sup>. 하동경찰서 횡천지서에 근무했던 김○○은 좌익활동가나 지역유지를 앞세워 가입을 시켰다고 진술했다.<sup>70)</sup>

일부 보도연맹원들은 “이승만이 만든 단체라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입했다.”고 진술했다.<sup>71)</sup> 가맹자들의 상당수가 무지한 농민들이었다는 증언은 경찰 참고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인 김○○은 ‘보도연맹 가입자들은 좌·우가 뭔지 분별하지도 못

61) 탈당성명서 하천직(하동) 자유민보, 1949년 12월 11일자.

62) 민주중보, 1949년 12월 3일자.

63) 민주중보, 1949년 12월 3일자.

64) 경향신문, 1949년 12월 10일자.

65) 경향신문, 1949년 12월 10일자.

66) 참고인 정계화 진술조서, 2009.7.14.

67) 참고인 유영수 진술조서, 2009.4.8.

68) 실제 참고인 이정기는 양보지서로 매일 호출되어 “도장 찍으면 고문 더 이상 안 당하고 폭행도 없다”고 찍으라고 가입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 참고인 이정기 진술조서, 2009.4.7.

69) 악양면 서리의 경우 권재우의 권유로 주민 9명 정도가 보도연맹가입서를 제출했다. : 참고인 박인권 진술조서, 2009.7.15.

70) 그는 “정권수, ○충우, 임상진, 송삼수 등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활동을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 참고인 김○○ 진술조서, 2009.6.4.

71) 실제로 1946년 1월 23일 이승만의 독립촉성국민회의를 지지하는 대한독립촉성 하동군 청년연맹이 신용관을 위원장으로 조직되었고 12읍면에 지부를 두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5월 4일엔 이승만이 하동초등학교에서 3만명의 군민이 모인 가운데 직접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악양면지』, 254-255면.

하는 무식자들이었다. 누가 좋다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무조건 찍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sup>72)</sup> 이상에서 볼 때 하동군의 보도연맹 가입자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좌익활동을 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단체의 성격을 잘 모르는 농민들이었다.

## 나. 사건경위

1950년 7월 28일 인민군 6사단이<sup>73)</sup> 하동군에 내려오기 한 달 전인 6월 말부터 하동경찰서는 보도연맹원을 대상으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 하동경찰서는 각 지서를 통해 보도연맹원을 예비검속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각 지서는 구장이나 기동대를 통해 소집명령을 전달하였다. 당시 17살로 악양지서에서 경비를 섰던 참고인 정홍석은 자신도 (보도연맹원)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sup>74)</sup>

하동군의 경우 보도연맹원 검속은 그 이전 1950년 6월 중순부터 시작<sup>75)</sup>되었다. 생존보도연맹원인 정계화는 “6월 중순부터 잡아 죽이기 시작했다”<sup>76)</sup>고 말했다. 이는 앞서 자수한 보도연맹원이 많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하동군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좌우익대립 투쟁<sup>77)</sup>이 첨예하게 드러났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빈번한 군경 합동수색과 토벌전투도 있었고 민간인에 대한 과잉 수사로 이어졌다.<sup>78)</sup> 적량면 마을주민 박단용은 검속 전에도 마을주민 대부분은 대한청년단과 경찰에 의해 자주 지서나 구장 집에 불려가서 “너 빨갱이 했제!”라고 추궁당하며 매를 맞았다<sup>79)</sup>고 진술했다.

보도연맹원들은 각 지서에 연행, 소집된 후 하동경찰서로 다음날 인계되었다. 구금된 보도연맹원들 중에 경찰 친척이나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풀려나기도 하였는데 경찰서장이나 지서장이 강성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죽임을 당했다고 참고인 김○○은 진술<sup>80)</sup>하였다. “특히 횡천면 면서기로 송삼수가 있었는데 보도연맹에 가입이 돼있어서

72) 참고인 김○○ 진술조서, 2009.6.4.

73) 조선인민보, 1950년 7월 29일자.

74) “난 그래서 매계부락에 가서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죽일려고 사람 불러오라고 하는 줄 알았다면 안 했죠. 몰랐지.”; 참고인 정홍석 진술조서(2009. 4. 8.).

75) 참고인 서병춘 진술조서, 2009.7.15.

76) 참고인 정계화 진술조서, 2009.7.14.

77) 함양, 산청 밀양 등지에서 빨치산 부대 맹활동, 해방일보, 1950년 7월 4일자; 7월 11일자.

78) 1960년 기사에도 하동군에서는 전쟁 전 공비소탕을 이유로 주민 700여 명이 학살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5사단 3연대 2대대 조재 중령이 인솔하는 공비소탕부대는 사리를 중심으로...(중략) 인접 하동군 옥종면, 청암면, 등 15개 부락 청년 700여 명을 사리에 있는 200평의 군농회 창고에 수용 3개월에 걸쳐 한꺼번에 100명씩을 빨갱이라고 사리 뒷산 조씨네 모지골짜기에 끌고 가 죽였다.” 부산일보, 1960년 5월 19일자.

79) 참고인 박단용 진술조서, 2009.7.15.

## 제 7 권

당시 송가들이 많이 죽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하동경찰서에 감금되어 있던 보도연맹원 중 몇몇은 김치현에 의해<sup>81)</sup> 풀려나기도 했다.

1950년 7월 11일경부터 말까지 하동경찰서에 구금된 보도연맹원들 중 등급에 따라 갑(甲)급은 진주형무소로 이송된 후<sup>82)</sup> 수차례 지리산 근처 산청 넘어가는 고개 및 불상지에서 사살되었다. 당시 진주형무소 형무관이었던 소○○는 “하동과 고성에서 끌려온 보도연맹원들과 좌익사범들을 간수가 포승을 죄게 한 후 헌병이 데리고 나가서 지리산에서 모두 죽였다”<sup>83)</sup>고 진술했다.

또한 하동경찰서 순경이었던 ○○○은 외근 중 호출되어 분대원 9명과 같이 쓰리쿼터와 화물차로 보도연맹원 30~40명을 구레를 거쳐 남원경찰서에 인계했다<sup>84)</sup>고 진술했다.

잔여 보도연맹원 50여 명은 1950년 7월 24일경 밤, 하동 경찰에 의해 섬진강 건너 광양시 진월면 백운산 기슭 매티재에서 사살되었다.<sup>85)</sup> 당시 매티재에서 살아나온 박인권은 “하동경찰서의 사찰계 9~10명이 칼빈 소총으로 50여 명을 처형했다”<sup>86)</sup>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은 “매티재에서의 즉결처형은 하동경찰 사찰계에서 주도했다”는 당시 하동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한 ○○○의 진술에서도 일치한다.<sup>87)</sup> 그밖에 전언에 의하면 진주에서 의령 가는 고개와 진양호 등 불상지에서 사살되었다.<sup>88)</sup> 그러나 매티재를 제외하곤 목격자나 생환자가 없어 시신수습이 불가능하였다.<sup>89)</sup>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보도연맹원을 소집한 이후 사망까지의 사실을 유족에게 통보하였는지에 대해 전쟁당시 하동경찰서에 근무하였던 참고인 정○○은 보도연맹원 처형에 관련하여 유족에게 통지한 적이 없다<sup>90)</sup>고 잘라 말했다.

80) 참고인 김○○ 진술조서, 2009.6.4.

81) “김치현은 당시 현역군인으로 악양면 매계마을 출신이라서 하동경찰서에 방문하여 감금된 사람들 중 같은 동향 출신의 송명숙 등 3명을 (석방토록 하여) 그들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참고인 유한상 진술조서, 2009.7.16.; 참고인 정홍석 진술조서, 2009.4.8.; 『악양면지』 752면.

82) 참고인 정계화 진술조서, 2009.7.14.

83) “전시라 좌익사범들을 가리지 않고 잡아들여서 형무소 안에 있는 가수용소도 감당을 하지 못해 운동장에도 수용하였고 연행된 자들은 하루 있다가 헌병이 다시 데리고 나간 경우도 많았다.”; 참고인 소○○ 진술조서, 2008.1.7.

84) 참고인 ○○○ 진술조서, 2008.12.5.

85) 참고인 이정승 진술조서, 2009.6.4.; 참고인 정홍석 진술조서, 2009.4.8.

86) 참고인 박인권 진술조서, 2009.7.15.

87) 참고인 ○○○ 진술조서, 2008.12.5

88) 참고인 이정기 진술조서, 2009.4.9.; 참고인 이순남 진술조서, 2009.4.9.

89) 이는 “처형을 밤에 많이 죽이고 장소도 모르는 곳에 데리고 가서 죽였기 때문에 시체를 찾는 것은 거의 힘들다”는 경찰 참고인의 진술에서도 그 정황이 나타난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 2009.6.4.

90) 참고인 정○○ 전화조사서, 2009.6.4.

다음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을 각 마을 단위로 구분하여 사건경위를 조사한 내용이다

1) 적량면 서리 도장골, 동점마을 사건(사건번호 다-6159, 다-6160, 다-6168, 다-6178, 다-6184, 다-6503)

적량면은 지리산에 인접한 산간 마을인데 여순사건이 발생한 후 지리산으로 들어간 빨치산들이 자주 출몰했던 곳이다. 마을사람들은 빨치산의 위협에 식량을 제공하거나 짐을 옮겨주는 등의 협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경찰에게 연행되어 희생당했다.

도장골에 거주하던 참고인 강대섭은 마을주민 강대운·강대엽 사촌형제, 이덕성, 최정섭, 유용덕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7월경 국민보도연맹원을 예비검속할 때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이들이 연행되고 난후 약 열흘이 지나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강대선, 유철우, 유정우, 강점복, 황용덕·황용구 형제, 강대익 등이 또다시 연행되는 것을 목격했는데 연행된 사람들은 모두 행방불명되었다. 당시 도장골에 들어온 경찰은 무장을 한 채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으며, 찾은 사람들은 마을회관 자리에 집결시킨 후 적량지서 방향으로 데리고 갔다.

경찰은 도장골 윗 마을인 동점마을에서도 주민들을 연행했는데 목격자 박달용에 의하면, 경찰들이 마을사람들을 호명하면서 한곳에 모이게 한 후 연행하였다. 이때 연행당한 사람이 박삼용, 김광명, 최성덕, 이윤기, 이기태, 박석주, 민정기, 박충훈 등이다.

이때 연행된 사람들은 하동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광양 매티재에서 경찰에게 사살되었다. 이 사실은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하동경찰서에 함께 구금되었다가 학살장소인 광양 매티재에서 살아나온 박인권에 의하여 확인되었다.<sup>91)</sup>

2) 적량면 하청일 희생사건(사건번호 다-6183)

하청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7월경 경찰에게 연행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찰들은 빨치산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고절리 안성마을로 내려왔다. 그리고 나서 마을청년들을 모두 모이라고 한 다음 아침까지 함께 지내면서 협조를 요구했다. 아침이 되자 자신들은 빨치산이 아니라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마을청년들을 하동경찰서로 연행했다.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청년들 중 신성용이 빨갱이 주모자라고 하

91) 참고인 강대섭 진술조서, 2010.2.2.; 참고인 박달용 진술조서, 2010.2.2.

## 제 7 권

면서 마을 입구에서 사살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고성포, 노정열, 박경만, 송재옥, 김모(某), 이남두, 박성복 등이었다.

마을청년들이 잡혀가고 며칠 있다가 경찰 2명이 다시 마을로 와서 하청일을 연행하였다. 이후 하청일은 행방불명되었다.

이때 함께 잡혀간 사람 중 고성포가 살아 돌아왔는데, 고성포는 하동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마을청년들 중 하청일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전주형무소로 보낸다고 하면서 먼저 데려갔으며, 일부는 광양 매티재로 데려가서 사살했다고 전했다. 고성포는 광양 매티재로 끌려갔으나 보도연맹원들이 사살당할 때 다른 사람 시신 밑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했다. 고성포는 학살장소에서 살아난 후 곧바로 남해로 도망갔다가 국군에 자원입대해서 전투에 참여하다가 실명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sup>92)</sup>

### 3) 청암면 정윤희 희생사건(사건번호 다-733)

정윤희는 1950년 7월 14일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당시 같은 마을에 살던 최채영, 이우춘, 조모(某) 등과 청암면 구황리에 살던 김원석 등도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이들은 하동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광양 매티재로 끌려가 사살당했는데, 희생현장에서 어깨에 총을 맞고 살아 돌아온 김원석이 마을로 돌아와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sup>93)</sup>

### 4) 옥종면 홍승윤 희생사건(사건번호 다-8732)

홍승윤은 1950년 7월초 반장이 찾아와 옥종지서 순경이 찾는다고 하여 순경을 따라 옥종지서로 갔다. 이날 홍승윤의 형 홍승원도 지서의 호출을 받고 옥종지서로 갔는데 그곳에는 약 30여 명이 구금되어 있었다. 지서 주임은 구금된 사람들은 하동경찰서로 데려간다고 하였는데 홍승윤은 지서에 구금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동경찰서로 넘겨졌고, 홍승원은 옥종지서에서 당일 날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하동경찰서로 간 사람들은 이후 행방불명되었다.<sup>94)</sup>

92) 참고인 정명관 진술조서, 2010.2.5.

93) 참고인 정윤희 진술조서, 2010.1.27.

94) 신청인 홍승원 진술조서, 2010.1.27.



## 다. 사건 조사결과

### 1) 희생자의 신원과 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신청인을 중심으로 희생자의 신원과 희생자의 규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결과 희생자들이 좌익활동으로 인해 경찰서에 구금되었던 적이 있거나 수형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희생자 대부분은 농민이었다.

이 사건의 희생자를 확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희생자의 연행과정, 희생과정 등을 목격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했다. 둘째,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사건 내용을 전하여 들은 자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했다. 셋째,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넷째, 국가기관 등에서 기록한 사건관련 자료를 통해 희생자의 희생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상의 내용에 의거하여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자 신원 및 확인 근거는 <표 7>과 같다.

〈표 7〉 희생자 신원 및 확인 근거

연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확인
		이름 (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사망연월일 <sup>95)</sup>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기타	
하동											
1	733	정윤화 (鄭允和)	남	34	1950.7.14.	광양 매티재		정우화			추정
2	6159	강점복 (姜点福)	남	44	1950.7.20.	광양 매티재	강대섭	서병춘 박달용			확인
3	6160	강대선 (姜大璇)	남	37	1950.7.	광양 매티재	강대섭	서병춘 박달용			확인
4	6168	이덕성 (李德成)	남	25	1950.7.	광양 매티재	강대섭	서병춘 박달용			확인
5	6178	최성덕 (崔聖德)	남	36	1950.7.	광양 매티재	박달용	강대섭 서병춘			확인
6	6183	하청일 (河淸逸)	남	28	1950.7.	하동경찰서	정명관				확인
7	6184	김광명 (金光明)	남	23	1950.7.	광양 매티재	박달용	강대섭 서병춘			확인
8	6503	박삼용 (朴三龍)	남	28	1950.7.	광양 매티재	박달용	강대섭 서병춘			확인
9	8732	홍승윤 (洪承允)	남	18	1950.7.	하동경찰서	정기화				확인

## 2) 가해책임(지휘·명령체계)

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도 경찰국에 치안국장 장석윤의 명의로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을 통해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언통신문을 전국 도 경찰국에 보냈다.<sup>96)</sup> 이어 6월 29일 ‘보도연맹원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의 건」 및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각 도 경찰국에 하달했다. 이어 7월 11일에는 「불순분자 검거의 건」이라는 제목의 치안국장 통첩을 잇 따라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sup>97)</sup>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경상남도 경찰국은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를 하동 등 각 경찰서에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하동경찰서는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했다.<sup>98)</sup> 당시 경찰로 재직 중이었던 참고인 김홍건은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신상 및 동향 파악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몇 개월 전부터 사찰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였고 진술했다.<sup>99)</sup>

경찰 참고인들은 평소 보도연맹원 관리, 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과 희생장소로 이송까지 경찰이 개입돼 있다고 시인<sup>100)</sup>하였으나 직접 살해 가담 여부에 대해선 부인하였다.<sup>101)</sup> 그러나 경찰이 보도연맹원 중 간부들을 먼저 죽이고 다음에 도장 찍은 보도연맹원을 처형하였다는 진술과<sup>102)</sup> 사찰계가 주도했다<sup>103)</sup>는 진술에 비추어 경찰에 의해 보도연맹원들이 살해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보도연맹 관련 가해책임에 대해 경찰 측 참고인 정○○은 보도연맹 관련 업무는 각 경

95) 사망일자가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연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였다.

96)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6월 25일 14:50), 진실화해위원회 입수 경찰문서.

97)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제호, 1950. 8. 6);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濟地檢 제168호, 1950.8.7), 진실화해위원회 입수 경찰문서. ‘同件에 관하여는 據 6월 25일 치안국장 통첩(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6월 29일 통첩(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통첩(불순분자 구속 처리의 건), 7월 11일 치안국장 통첩(불순분자 검거의 건) 등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98)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6월 25일 14:50), 진실화해위원회 입수 경찰문서.

99) 참고인 김홍건 진술조서, 2009.5.14.

100) 참고인 안○○ 진술조서, 2009.6.4.

101) 참고인 ○○○ 진술조서, 2008.12.5.

102) 참고인 김○○ 진술조서, 2009.6.4.; 참고인 김성원 진술조서, 2009.5.14.

103) 참고인 서종원 진술조서, 2009.5.14.

찰서 사찰계에서 극비로 처리하였고 처형지시가 경남도경찰국에서 내려왔다고<sup>104)</sup> 하였고 김홍건도 경찰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고 중앙에서 명령이 내려왔다<sup>105)</sup>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보도연맹원에 대한 가해책임은 경상남도 경찰국 소속 하동경찰서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나 중국적 책임은 각 경찰서에 지휘·명령한 내무부 치안국에 속하며 따라서 군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게 최종 책임이 귀속된다.

### 3) 가해의 위법성 여부

한국전쟁 직후 정부는 경상남도 하동군 보도연맹원 등 인민군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좌익혐의자들에 대해 예비검속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미군정 시기나 정부수립 이후 예비검속제도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정 1950.6.25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은 포괄적인 비상범죄와 그에 따른 형량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예비검속과 구금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1950년 7월 12일 송요찬(宋堯讚) 헌병사령관은 포고를 발표해 ‘계엄시행지역에 있어서는 예방구금을 행할 수 있다’<sup>106)</sup>고 규정함으로써 예비검속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구금에 관한 포고 이전인 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 통첩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7월 11일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하달하여 하동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구금하였다. 그러므로 하동군에서의 예비검속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행위이다.

한편 조사결과 연행·구금된 하동군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경찰(또는 군인)에 의해 즉결살해되었다. 한국전쟁 직후 좌익혐의자를 간첩죄나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던 법으로는 「구(舊)형법」,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 있었다. 이 중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군법회의에서, 그 외의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하동군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어떠한 재판과정도 없이 즉결살해되었다. 따라서 하동군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즉결살해는 불법이다.

104) 참고인 정○○ 전화조사서, 2009.6.4.

105) 참고인 김홍건 진술조서, 2009.5.14.

106) 부산일보, 1950년 7월 18일자

### 3. 기타 사건

#### 가. 하동군 금남면 황월봉 부역혐의 희생사건(사건번호 다-9434)

하동군 금남면에 거주하던 황월봉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었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국민보도연맹원을 소집할 때 조부 상을 당해 소집을 피했다. 이후 인민군이 하동을 점령했을 때 인민군에게 협조했는데, 인민군이 퇴각하고 나서 하동경찰서에 자수를 하였다. 자수를 한 황월봉은 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군경에게 불려 나간 후 하동군 하동읍 송림 옆 섬진강변 모래사장에서 군경에게 사살되었다고 한다.<sup>107)</sup>

이 사건은 국민보도연맹원이었던 황월봉이 인민군 치하에서 부역행위를 했는데 군경이 하동군을 수복하자 자수를 하였다. 그러나 군경은 자수를 한 황월봉을 송림 옆 섬진강가로 데려가 불법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산청군 산청읍 문홍각, 문홍택, 박氏 희생사건(사건번호 다-3762, 다-3763)

산청군 산청읍 묵곡리에 거주하던 문홍택, 문홍각 등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었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국민보도연맹원을 소집할 때 1차 소집에서 풀려난 후 도피하였다. 경찰은 인민군이 산청군에 진입하기 며칠전 다시 이들을 다시 소집하려고 했지만 이미 도피하고 없자 가족들을 연행한 후 대살(代殺)했다.<sup>108)</sup>

문홍각은 경찰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 1951년 12월 24일 친척집에 갔다가 잠복하고 있던 특무대원들에게 사살되었다. 희생자의 친척인 문정칙은 ‘문홍각을 사살한 특무대원이 희생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문홍각의 머리를 절단한 후 지게에 싣고 따라오라고 하여 산청군 소재 특무대원의 숙소로 가지고 갔다.’고 진술했다. 이후 문홍각의 부친은 벼 두 가마를 주고 문홍각의 머리를 찾아와 매장하였다.

문홍각을 사살하던 현장에 있던 특무대원 ○은 ‘산청읍 묵곡리에 사는 문모(某)가 친척집에 나타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본인과 강진익, 이만호 등 4명이 함께 사살했다.’고 진술했다.

문홍택과 박氏도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도피하던 중 1952년 3월 9일 문홍택의 처남 임상구의 주선으로 자수를 했는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연행한 후 행방불명되었다.

107) 신청인 황규정 진술조서, 2009.3.31.; 참고인 조한조 진술조서, 2009.6.4.; 참고인 황규태 진술조서, 2010.1.28.

108) 이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거창·산청·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11.10.

특무대원 ○○○은 ‘나도 문홍택을 잡으려고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데 문홍택과 그 딸이 한국전쟁 나고 입산했다가 나중에 경찰에게 잡힌 것으로 알며, 당시 도피자들이 잡히면 그 지역에서 처리하곤 했다.’고 진술했다.<sup>109)</sup>

이 사건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도피했던 희생자들이 친척집에 들러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수를 하려던 과정에서 특무대, 경찰 등에게 불법적으로 사살당한 사건으로 판단된다.

다음 <표 8>은 희생자 신원 및 확인 근거이다.

**<표 8> 희생자 신원 및 확인 근거**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확인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연월일 <sup>110)</sup>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기타	
1	9434	황월봉 (黃月奉)	남	24	1950.10.	하동군 송림면 백사장		황규태 조한조			확인
2	3762	문홍택 (文洪澤)	남	38	1952.3.9.	모름		○○○			추정
		박氏 <sup>111)</sup>	여		1952.3.9.	모름		○○○			추정
3	3763	문홍각 (文洪珪)	남	35	1951.12.24.	산청읍 목곡리	○○○		○		확인

### 다. 산청 외공리 사건(사건번호 다-3147)

산청 외공리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2008년 유해를 발굴하였는데 그 숫자는 최소 268명, 최대 276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유해발굴을 통하여 민간인이 집단학살되었다는 사실과 가해자는 국군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희생자의 구체적인 신원 및 가해 국군의 소속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희생장소에서 한자로 이병제(李柄濟)라고 새겨져 있는 도장이 출토되어 향후 희생자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충북대학교박물관 『한국전쟁 전후 민

109) 신청인 문종길 진술조서, 2008.2.13.; 참고인 문정척 통화보고, 2010.5.10.; 참고인 ○○○ 면담보고, 2010.4.7.

110) 사망일자가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연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였다.

111) 특무대원이던 ○○○은 희생자가 문홍택과 딸인 것으로 기억하지만 신청인은 문홍택과 신청인 3중조모 박氏였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3중조모 박氏는 족보에 입적하지 않은 상태이며, 후손이 없어서 이름을 모른다고 했다.

간인 집단희생관련 2008년 유해발굴 보고서, 2009.3.10] (이하 '유해발굴보고서')에서 조사한 내용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

따라서 산청 외공리의 사건내용은 '유해발굴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 ['유해발굴보고서' 요약]

#### ① 피해자는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산청 외공리 소정골에는 최소 268명, 최대 276명의 사람들이 학살, 매장되었다. 그중에는 10여 명의 여성과 1명의 어린아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이는 대체로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인 연령대로 보아 매우 젊은 사람들이었다.

발굴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적어도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를 확인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발굴에서는 교복 1벌의 세트가 될 만한 양의 단추(仁商, 京農, 金中, 崇中, 仁中)가 출토되어, 희생자 중에는 교복을 입고 온 사람이 여럿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확인 가능한 학교 소재지는 인천과 서울이다. 교복을 입은 사람의 주소지가 반드시 학교 소재지와 일치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위의 세 학교의 예로 보아 희생자들 일부가 서울, 경기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제복용 등 금속제 단추가 많이 출토된 사실은 또한 이곳에 온 사람 중 다수가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단서이다.

천, 단추, 지퍼, 운동화 등 복장과 관련된 물품 빗, 구두주걱, 열쇠, 비녀와 팔찌, 찻잔, 동전 등의 소지품을 종합해 볼 때 이곳에 온 사람들의 복장은 당시 도시지역의 일반적인 사람들 복장 그대로였다. 물론 그중에는 교복을 입었거나 공무원 제복을 입은 사람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이곳 외공리 소정골에서 학살된 사람들은 그 당시의 신분이 죄수와 같이 통일된 복장을 한 수감자의 상태가 아닌, 말 그대로 순수 민간인이었음은 분명하다. 물론 그들 속에는 다수의 여성과 어린아이, 학생과 제복을 입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지품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보아 도시지역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다수 포함된 것 같다.

#### ② 가해자는 누구인가?

그동안 신문기사 등을 통해 외공리 민간인 학살사건 가해장 대한 몇몇 증언이나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관계는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여러 사람의 증언 가운데에서 장갑차와 같이 위에 큰 총을 거치한 차량이 맨 앞에 있었다는 점은 일치하며, 국방색의 옷에 (철모가 아닌) 챙이 있는 모자를 썼다는 사실 정도가 일치하는 전부이다. 발굴내용을 보면 권총 외에 모두 카빈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에 추가할 수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여기에 온 가해자는 모두 카빈소총을 소지한 잘 편제된 정규군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외에 다른 사항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 ③ 학살과 매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소정골 초입에서 차에서 내린 후 민간인들은 이불과 옷보따리, 숯, 식기 등 가재도구들을 모두 근처에 버렸다. 그 후 민간인들 사이사이에 군인이 끼어서 일렬로 길게 늘어선 상태로 골짜기 개울 옆으로 난 소로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매장지 근처에 도착한 후, 1시간가량 구덩이를 판 뒤 손을 뒤로 묶였고 차례대로 구덩이 안에 들어가 꿇어앉혀졌다.

구덩이에 사람들을 꿇어 앉힌뒤 한 두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사살을 가하였다. 탄피와 매장자의 수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개골을 확인한 결과 대체로 머리를 조준해서 쏜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앞으로 고꾸라졌고 몇몇은 옆으로 쓰러졌다.

유해발굴보고서의 내용은 사건 당시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에 거주하던 박병용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박병용의 목격에 의하면 '1951년 2월~3월경 국군이 인솔한 버스 16대에 민간인 수백여 명을 싣고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에 도착한 후 골짜기로 끌고 올라가서 집단사살했다. 사살과정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2시간 정도 총소리가 났고 국군이 철수한 뒤 마을사람들이 희생현장을 가보니 시신들이 흙더미 속에 보여서 이장의 지시에 따라 매장'했다고 진술했다.[참고인 박병용, 진술조서(2006.7.6.)]

이 사건과 관련해서 1960년 5월 19일자 부산일보에 기사가 실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청군 시천면 사(糸)리에서 본사현지특별과견취재부 발(發)] 경호강 300리 물줄기가 5만 마일의 지리산 허리를 감돌고 있는 각 지역 산촌에서 최소한 1,300명의 주민학살의 비극이 밝혀졌다.

당시의 시천면 특공대장 김남준(金南俊, 41)씨에 의하면 이제 새로 드러난 참살사건은 … 산청군 시천면 외공(外公)리 점(店)동부락 뒷산 소진골짜기에는 84년(1951년) 3월 12일 하오 2시 피난민을 이민시켜 준다고 양민을 끌고 와 500명을 송두리째 생매장한 학살사건이 김종원(金宗元)이가 인솔해온 11사단 9연대 화랑부대에 의하여 감행된 것이 알려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300명의 부락 청년들을 인솔, 전투에 직접 참가했던 김남준씨의 산 증언이며 84년 3월 12일 상오 10시 쏟아지는 비를 무릅쓰고 1대의 장갑차를 앞세워 검은 「택시」에 몸을 실은 김종원이 세 「추력」에 태운 군인들의 호위 아래 11대의 「버스」로 이곳에 끌고 와 비 내리는 하오 2시 사리에서 10 떨어진 외공리 점동부락 뒷산 소정(소정)골짜기에 몰아넣고 능선의 상봉에서 모포와 숯, 냄비까지 소지했던 부녀자와 어린이 등 500여 명을 총살하고 떠나갔다는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산청 외공리 사건의 가해부대는 11사단 9연대이고 인솔자는 김종원이라고 특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조사결과 가해부대가 11사단 9연대<sup>112)</sup>이고 인솔책임자가 김종원<sup>113)</sup>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산청 외공리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유해발굴 결과와 목격 참고인의 진술, 사건 관련 신문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1951년 2월에서 3월사이에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민간인들이(최소 268명, 최대 276명) 소속이 밝혀지지 않은 국군에게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 소정골에서 집단학살당했다고 판단된다.

### Ⅲ. 결론 및 권고사항

#### 1. 결론

##### 가. 진실규명

1. 한국전쟁 이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948년 여순사건~한국전쟁 이전. 사건 번호 다-953 등 31건)은 거창군, 함양군, 하동군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빨치산과 내통·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군경에게 집단살해되었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여순사건이후 지리산지구에서 빨치산 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국군, 거창경찰서, 함양경찰서, 하동경찰서 경찰 등은 산간마을을 중심으로 빨치산의 인적, 물적 보급로를 차단하고, 빨치산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산간 마을을 소개 했다. 이 과정에서 군경은 주민들을 빨치산과 내통·협조하였다는 혐의로 군부대, 거창, 함양, 하동경찰서와 각 지서 등으로 연행하여 고문과 취조를 하여 선별한 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남산, 마천면 군자리 솔봉, 안의면 공산머리 가매실, 안의국민학교 뒤 대밭골, 화개면 담배창고 뒷산(현 화개지서 옆 화개제다), 화개면 부춘리 섬진강변 등지에서 집단살해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주로 빨치산들이 활동하던 지역에 거주하던 산간마을 주민들로

---

112) 국군 11사단 9연대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개월 전에 거창, 산청, 함양에서 민간인 수백 명을 집단학살한 '거창사건'을 일으켰다.

113) 김종원이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을 직접 학살한 사례는 많은 증언과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지만 사건 당시 경남지구 계엄사령부 민사부장이었던 김종원이 직접 인솔하여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빨치산과 내통하거나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다. 당시 가해주체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사살의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만 이들이 빨치산과 협조했거나 협조할 것이라고 여겨 불법사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사건번호 다-733 등 9건)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상남도 하동군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하동경찰서 경찰들이 소집, 연행하여 1950년 7월경 집단사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하동경찰서(지서) 소속 경찰에게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경찰서 유치장, 지서 등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이전의 좌익활동경력 정도에 따라 분류되어 광양군 매티재 등에서 경찰에게 집단사살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국민보도연맹원 및 좌익혐의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좌익활동 경력이 있었던 자수·전향자였고 일부는 좌익활동과 무관한 남성들로서 대체로 20~40대의 농사를 짓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당시 가해주체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재판 등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만 이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구금하여 불법사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하동군 황월봉(사건번호 다-9434) 부역혐의 사건은 인민군 치하에서 부역행위를 했던 황월봉이 군경의 하동을 수복하자 하동경찰서에 자수하였다. 그러나 군경은 자수한 황월봉을 인민군치하에서 부역행위를 한 사실을 근거로 하동을 송림 옆 섬진강 백사장으로 데려가 불법사살한 것으로 보인다.

4. 산청군 산청읍 묵곡리 문홍택, 박氏(사건번호 다-3762), 문홍각(사건번호 다-3763) 희생사건은 국민보도연맹원 소집 당시 도피하였다가 친척집에 들르러온 문홍각은 1951년 12월 정보를 입수하고 대기하고 있던 특무대원들에게 사살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에게 자수 의사를 밝힌 문홍택, 박氏는 1952년 2월 자택에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소식이 없기에 연행한 경찰에게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5.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56명이고, 희생 추정자는 8명이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이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거창지역의 확인된 희생자는 맹태호[孟泰鎬, 다-358(3)], 이현욱[李賢旭, 다-358(3)], 백창순[白昌淳, 다-358(3)], 백용순[白容淳, 다-

## 제 7 권

-358(3)], 박재규[朴在圭, 다-358(3)], 정진국[鄭鎭國, 다-358(3)], 심재섭[沈在燮, 다-358(3)], 김상출[金相出, 다-358(3)], 이성록[李成祿, 다-358(3)], 이춘복[李春福, 다-358(3)], 윤기순[尹基淳, 다-358(3)], 이금행[李金行, 다-358(3)], 김종환[金鍾煥, 다-358(3)], 김정곤[金正坤, 다-358(3)], 정덕용[鄭德用, 다-358(3)], 김만대[金萬大, 다-358(3)], 박윤호[朴允浩, 다-868], 유봉태[劉鳳泰, 다-4112] 등 18명이고 희생 추정자는 이영이[李滌伊, 다-358(3)] 1명이다.

함양지역의 확인된 희생자는 공기홍(孔奇洪, 다-953), 석성수(石聖守, 다-1978), 한상훈(韓相燾, 다-2877), 곽병석(郭丙錫, 다-3086), 홍순철(洪淳哲, 다-3580), 김채규(金采圭, 다-5116), 곽봉준(郭鳳準, 다-6809), 강위철(姜渭喆, 다-8741), 김원대(金元大, 다-9975), 신재현(申在鉉, 다-10169), 신호영(申浩永, 다-10169), 전영구[全永九, 다-2604(1)] 등 12명이고 희생 추정자는 권구현[權求鉉, 다-3360(1)], 권계현[權季鉉, 다-3360(1)] 등 2명이다.

하동지역의 확인된 희생자는 정흥덕(鄭興德, 다-3232), 정태석(鄭泰錫, 다-3233), 정민석(鄭玟錫, 다-3676), 강윤석(姜允錫, 다-6158), 정사현(鄭士賢, 다-6161), 정수현(鄭守賢, 다-6161), 심은섭(沈銀燮, 다-6174), 이인호(李仁鎬, 다-6175), 조성조(曹聖助, 다-6176), 정을묘(鄭乙卯, 다-6177), 정환삼(鄭煥三, 다-6179), 심재섭(沈在燮, 다-6180), 심정섭(沈鉦燮, 다-6181), 정순경(鄭淳鏡, 다-6182), 이삼용(李三龍, 다-6185), 최수열[崔穗烈, 다-7306(1)] 등 16명이고 희생 추정자는 심두섭(沈斗燮, 다-6186), 김도종(金道宗, 다-9289) 등 2명이다.

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확인된 희생자는 강점복(姜点福, 다-6159), 강대선(姜大璇, 다-6160), 이덕성(李德成, 다-6168), 최성덕(崔聖德, 다-6178), 하청일(河清逸, 다-6183), 김광명(金光明, 다-6184), 박삼용(朴三龍, 다-6503), 홍승윤(洪承允, 다-8732) 등 8명이고 희생 추정자는 정운화(鄭允和, 다-733) 1명이다.

하동군 수복 후 부역혐의 사건의 확인된 희생자는 황월봉(黃月奉, 다-9434) 1명이고, 산청군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확인된 희생자는 문홍각(文洪珏, 다-3763) 1명이며, 희생 추정자는 문홍택(文洪澤, 다-3762), 박氏(다-3762) 등 2명이다.

6.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들 중 일부는 좌익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은 좌익활동과 무관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당시 가해주체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학살하였다.

7.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한국전쟁 전후 지리산지구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던 국군 제5사단 제3연대 등과 거창, 함양, 하동, 산청경찰서 경찰로 확인되었다.

8.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군과 경찰이 빨치산 토벌작전,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 부역혐의 등의 명분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 나. 진실규명불능

1. 진실화해위원회는 함양군 주민 조성옥(趙星玉, 사건번호 다-1981)의 희생사실을 조사하였으나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2.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해발굴 등 조사결과 산청 외공리 사건(사건번호 다-3147)은 1951년 2~3월경 신원미상의 민간인들(진실화해위원회의 유해발굴 결과 최소 268명, 최대 276명)이 소속이 확인되지 않은 국군의 인솔 하에 버스로 이동하여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에 도착한 후 인솔해온 국군에게 집단사살당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희생자의 신원 및 가해 국군의 소속부대가 확인되지 않아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 2. 권고사항

이 진실규명된 사건에 대하여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국가의 사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민간인을 혐의만으로 법적 절차 없이 집단적으로 사살한 데 대해 국가는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위령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희생현장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희생자 대부분의 사망일, 사망장소가 오기되어

## 제 7 권

있었다.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을 용이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라. 역사기록의 수정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기록물이 잘못 기술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마. 평화인권교육 강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시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첨 - 사진자료]

[사진 1]산청군 시천면 외공리 사건 발굴 사진(사건번호, 다-3174)



[사진 2]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 발굴 사진(사건번호, 다-3174)



